

## 큰 폭의 세대교체 헤비급 김제경만 타이틀 지켜

94년도 남녀 한국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93.12.8~10. 국기원)



기라성같은 선배들 누르고  
동성고 김제경 웰터급 우승

94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제 11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대표 선수를 파견하기 위해 예년에 비해 앞당겨 실시된 국가대표선발전은 김제경을 제외한 기존

대표들이 대거 탈락, 큰 폭의 세대교체가 이뤄졌다.

92바르셀로나 올림픽과 93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헤비급 우승자인 김제경은 예선전서 지하철공사의 박세홍을 6:4판정승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해 이번대회 최대의 관심을 모은 하태경과의 결전에서 뒷차기와 내

려차기로 4:2판정승을 거두며 결승전에 진출했다.

결승전에서는 경희대의 김정규를 맞아 2회에 뒤돌려차기, 3회에 앞차기로 득점을 올리며 2:0판정으로 헤비급 우승과 함께 기존 대표선수로 유일하게 타이틀을 지켰다.

웰터급경기에서는 유일하게



동성고의 김경훈이 정상에 올라 돌풍을 일으켰다. 김경훈은 예선전서 93국가대표 1위자로 제 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웰터급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임영호를 2:2동점인 가운데 우세승을 따내 파란을 일으키며 준결에 진출, 한체대의 김동민을 맞아 빠른 발차기며 뒤돌려차기 등을 적중시키며 6:3판정으로 꺾고 결승에 올라 경원대의 김길훈을 2:1로 판정승, 태극마크를 달았다.

기라성같은 대표출신 선배들을 물리치고 남자부에서 유일하게 고교생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경훈은 1미터 96의 국내 최장신 태권도선수로 긴다리를 이용한 앞발 후려찍기와 뒤차기 기술이 독특기, 키가 커서 순발력이 다수 뒤지는게 흡인 김경훈은 충분한 연습량으로 단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각오여서 국제무대에서 기대되는 유망주로 떠올랐다.

최경향급인 핀급경기에서는 동아대의 최홍운이 2년 연속 국가대표를 지낸 한체대의 진승태(92년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 핀급 2위, 93년 제11회 세계선수권대회 핀급 우승)에게 결승에서 우세승을 거두고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

## 여자 전체급 모두 새 얼굴로 대표 바뀌어

여자 국가대표는 전체급 모두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는 이번을 보여주었다.

성신여대는 코치도 없는 상황에서 페더급 신동선과 헤비급 김태희를 국가대표로 배출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고등학교생으로는 핀급의 양소희(천안여고)와 라이트급의 강해은(경성여실고)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양소희는 결승에서 국가대표 1진이었던 유수진(경희대)을 5:2판정승으로 이기고 국가대표 1위로 선발되어 태극마크를 달게 되었다. 양소희는 93년도에 유수진에게 밀려 국가대표 2위에 머물렀는데 설욕전을 펼친셈이다.

라이트급의 강해은도 93년도 국가대표 2위였다가 94년도 국가대표 1위로 선발된 케이스이다. 강해은은 예선에서 리라공고의 조미혜에게 4:2 판정승을 거두고 준결에 올라 93년 국가대표로 제4회 세계여자선수권대회에서 라이트급 은메달을 따낸 박경숙(경희대)을 맞아 우세승을 따내며 결승전에 진출, 혜성여고의 유망주 채수진을 9:3판

정으로 누르고 태극마크를 달았다.

한편 플라이급경기에서는 용인대의 이순영이 93국가대표 유수미(93년 제4회 세계여자선수권플라이급 1위)를 예선에서 누르고 준결에 진출, 송곡고의 최재숙에 6:1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서 같은 학교인 서미라에게 1:0판정승으로 국가대표로 발탁되었다.

이순영은 92년 국가대표로 제 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핀급 우승을 차지한 바 있어 아시아선수권 2연패에 도전하게 되었다.

밴텀급 국가대표는 유연성과 체력을 겸비한 한체대의 진용순(한체대)이 선발되었다.

광명상고 재학생에 뛰어난 뒷차기 기술을 자랑하며 90년도와 91년도에 월드컵 태권도 대회에 대표선수로 파견되어 플라이급 2위와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진용순은 3년만에 국가대표로 복귀하는 영광을 안았다.

웰터급 경기에서는 93년도 국가대표 1,2위자였던 용인대의 김미영(제4회 세계여자선수권 웰터급 1위)과 조항미(제4회 월드컵 게임 웰터급 1위)가 결승에서 겨루어 2:1판정승으로 조항미가 승리, 국가대표 1,2위가 자리바꿈을 하였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체급별 1위자는 94년 1월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 선수권대회에, 2위는 7월의 94월드컵대회(케이만군도)에 각각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태극마크**

## 초유의 무사고 화합체전

제74회 전국체육대회(93.10.12~17. 광주 조선대체육관)



▲ 종합우승 서울, 2위 광주, 3위 전남

「화합·인정·질서·문화」의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광주 무등골을 뜨겁게 달구고 지난 10월 17일 막을 내렸다.

시범종목으로 처음 채택된 여자부를 포함하여, 15개 시도지부

와 재미, 재브라질, 재호주 등 3개 해외지부에서 439명의 선수가 참가한 태권도경기는 전년에 이어 서울시선수단이 금5, 은8, 동2(여자부 성적 제외)로 종합우승을 하였다.

서울시, 홈팀 광주에 신승(辛勝)

홈팀으로서 16체급의 부천시 드를 안고 종합우승에 강력히 도전한 광주시선수단은 상위메

달에서 서울팀에 많이 뒤졌지만 (금2, 은3, 동11) 전체점수에서 300점차까지 추격해 서울팀을 결승 마지막 경기까지 괴롭혔으나 서울팀이 고등부경기에서 분전(금4, 은1)함으로써 2위에 머물렀다.

홈팀 광주에 이어 전남선수단이 3위(금4, 동4)를 기록함으로써 태권도의 강력한 남도세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 여자부, 경기·인천 불참 13개 지부 84명 참가

한편, 여자선수들의 숙원이었던 여자부종목의 체전 채택이, 비록 시범이긴 하나, 최초로 실시되어 전국의 여자태권도가족들을 열광케 하였다.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13개

시도선수단 84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인 여자부 경기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각 선수단이 고른 경기 내용을 보여 여자태권도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저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단 한건의 판정항의 등 사고가 없었던 대회로 기록돼 역대 체전사고 1위라는 불명예를 씻었다.

#### ▲남자부

- 1위: 서울(금5, 은8, 동2)  
점수 2,420
- 2위: 광주(금2, 은3, 동11)  
점수 2,132
- 3위: 전남(금4, 동4)  
점수 1,393
- 4위: 경기(금1, 은2, 동7)  
점수 1,349
- 5위: 충남(금1, 은2, 동4)  
점수 1,164

- 6위: 부산(금2, 동4)  
점수 1,115
- 7위: 강원(금1, 은3, 동2)  
점수 1,004
- 8위: 경남(금3, 은1)  
점수 884
- 9위: 제주(은1, 동6)  
점수 854
- 10위: 대전(금2, 동1)  
점수 826
- 11위: 전북(금1, 동4)  
점수 750
- 12위: 충북(은2, 동2)  
점수 641
- 13위: 인천(금1, 은1, 동1)  
점수 598
- 14위: 대구(금1, 은1)  
점수 537
- 15위: 경북  
점수 174

#### ▲여자부(시범종목)

- 서울(금3, 동2)
- 부산(동1)
- 대구(동2)
- 광주
- 대전
- 강원(금1, 은1, 동1)
- 충북(금1, 은1, 동1)
- 충남(금1, 은2, 동4)
- 전북(은4, 동2)
- 전남(금1, 동1)
- 경북(동1)
- 경남(동1)
- 제주(금1)

태권도



◀ 고향의 명예를 건 힘찬 발차기

## 올해의 최우수선수상 남자 김인경, 여자 황은숙 영예

93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93.11.9~12. 국가원)



▲ 지도자상을 수상한 김준태(상명여대) 양대승(한체대) 코치

93년도에 개최된 전국 규모대회에서 입상전적이 있는 우수한 선수들만이 출전해 올해 최고의 체급별 우승자를 가린 우수선수 선발대회에서 올해의 최우수선수상은 남녀 밴텀급 우승을 차지한 한체대의 김인경과 상명여대의 황은숙에게 돌아갔다.

남자부 경기에는 총 177명, 여자부 경기에는 83명의 입상전적 보유자들이 거문 이번대회는 특히 체급별 1, 2, 3위자 4명이 94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대회

진출자격을 갖게 됨으로써 선수들간에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남자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인경은 예선전에서 개금고의 이임수, 풍생고의 김성태, 경희대 김현용을 차례로 판정으로 누르고 준결에 진출해 같은 학교 동문인 김남우에게 가볍게 판정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충남체고의 김광호를 맞은 결승전경기에서 김인경은 노련하게 경기를 리드하는 가운데 주

특기인 뒷차기로 몸통을 공격해 득점을 얻어내며 승리했다.

김인경은 93 국가대표로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밴텀급 우승을 차지한 배태랑으로 성동고 3학년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기량을 과시하기도 했다.

여자부 밴텀급 경기는 93 국가대표인 원선진, 전국국가대표 황은숙, 진용순이 출전,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황은숙은 준결에서 원선진을 판정승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고, 고교 유망주인 이선영(송곡고)이 진용순을 판정승으로 꺾는 돌풍을 일으키며 결승에 진출했다.

황은숙은 1회 초반부터 몸통을 뒷차기로 공격하며 가볍게 승리를 장식하며 92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최우수선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편 뛰어난 지도로 우수선수를 배출한 지도자상은 한체대의 양대승코치, 상명여대의 김준태코치가 수상했다. **태권**

## 서울 지방 경찰청 단체 우승

제48주년 경찰의 날 무도대회 개최

('93.10.20., 중앙경찰학교)



▲ 시상식 모습

### 우승자에게 한 계급 특진

가을 하늘이 유난히도 맑고 높게 트인 10월 20일. 경찰의 요람인 중앙경찰학교에서는 국립 경찰 창설 48주년을 맞이하여 전국 경찰 무도대회가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무도 종목은 태권도·유도·검도 경기였으나 특히 태권도 경기의 장면 장면은 국제대회를 방불케 하여 손에 땀을 쥐게한 경기였다. 선수 제각기 출신 시도를 위하여 분전하는 모습에

천여명의 관중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경기장은 2개 코트를 설치하였고 컴퓨터 채점기를 사용함으로써 대회의 공정성을 높였다.

우승에는 특진이 걸린 관계로 경찰 고유의 특성상 과열 경쟁이 예상 되었으나 한치의 양보 없는 경쟁 속에서도 질서있는 운영과 성숙된 경기 매너로 한건의 사고없이 무사히 치워졌다.

태권도 경기에는 단체전 무제한급 5명으로 구성된 전국 시도 18개팀 90명 개인전 36명 등

총 126명이 출전, 각 시도 팀의 뜨거운 응원전 속에 단체전에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우승기를 안게 되었고, 2위는 부산지방경찰청, 3위는 경기도지방경찰청, 그리고 4위 장려상은 인천지방경찰청이 차지하였다. 개인전에는 치열한 접전 끝에 서울 지방경찰청의 송영래선수가 차지하여 영예의 특진을 하였고 2위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의 정상식 선수가, 3위는 대구지방경찰청의 김명성선수가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제48주년 경찰의 날 무도대회 태권도 경기는 중앙경찰학교의 우람한 학교의 전경과 주위의 전경이 어우러져 폭 중 국무술의 소림사를 방불케한 대회였으며 심판진은 종전과 달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각 시도 심판원 1명씩으로 구성하는 등 대회운영에서도 성공적이었다고 본다.

한편 이 경기가 성공리에 치루어 지기 까지에는 중앙경찰학교 체육학과 교관으로 근무하는 노용조사범(경위)의 헌신적 노력이 숨어 있었다. 그는 80년대 초에 경찰에 투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공공 안녕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 태권도 기술과 정신을 바탕으로 전의경과 경찰들에게 태권도를 지도하였다.

금년 4월에는 전국 경찰 무도 사범들에게 경찰 기초 체포술을 지도하는 등 경찰계에서 태권도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 **태권**

# 흥겨운 음악과 율동이 어울어진 품새, 위력적인 격파에 환호

**제2회  
태권도 한마당 '93**  
('93.11.27~29,  
KBS 88체육관)

태권도를 무도로서의 본모습을 되찾고 생활체육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2회 태권도 한마당경연대회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KBS 88체육관에서 개최되어 빼어난 품새와 위력적인 격파를 보여준 부문별 우수자들을 선발했다.



260만 태권도인들의 큰잔치인 태권도 한마당 '93에는 일반 도장과 학교에서 생활스포츠나 무도로 태권도를 수련해온 순수 아마추어 태권도인들이 296개팀에서 627명의 경연자가 참가했다.

11월 27일 오후 3시에 시작된 개회식에는 최세창 대한태권도협회장을 비롯해 이사들과 시도지부 태권도협회장, 김성집 대한체육회 부회장 등 태권도계 및 체육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최세창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태권도 한마당 잔치를 통해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의 우수한 가치를 홍보하고 또 이를 더욱 심도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은 태권도의 높은 정신과 기술을 발휘해 줄 것과 이잔치를 통해 태권도인 모두가 우정과 화합을 나누는 축제로 승화되길 기원했다.

식후 공개행사로는 미동국민학교 어린이 시범단과 국가대표 성인시범단의 태권도 시범과 서울지방경찰청 시범단의 호신술 시범이 펼쳐져 관중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소년, 청년, 장년, 여성부 등 4개부로 나뉘어 벌어진 경연대회에는 손날격파, 주먹격파, 발격파, 멀리뛰어차기, 높이뛰어차기, 종합격파 등 격파 6종목과 일반품새, 창작품새, 건강품새로 나뉜 품새 3종목 경연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종목별로 제한없이 경연에 참가시킨 것을

제한, 격파부문은 1인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하였고 품새부문도 5,9,12,15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토록 하였다.

##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은 건강품새

품새경연은 현재 도장이나 학교에서 수련해온 일반품새를 누가 절도있고 힘차게 잘하는지를 경연한 일반품새와 참가자들이 창작한 품새의 우수성을 심사한 창작품새, 태권도의 생활스포츠화를 위해 태권도 동작을 위주로의 건강품새로 나뉘어 실시되었다.

일반품새 소년부 경연에는 서울신우국민학교(박충민외 4명)가 최고점수를 얻으며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정의체육관(이승훈외 8명), 청목체육관(김영록외 14명), 신산국민학교(권오주



외 4명)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빼어난 품새로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문래국민학교(조은영외 11명)는 제1회 대회에 이어 2연패 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창작품새 장년부경연에는 불광건민조기회(김순철외 8명) 팀이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과시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특히

김순철씨는 70세의 나이로 4단의 유단자인데 이번 대회 출전자 중 최고령자. 웅권(熊拳)이라 명명한 창작품새로 우수상을 차지한 불광 건민조기회팀은 노장년층의 근육의 발달과 호흡의 조절로 기를 충만케 하여 강건한 체력보강과 심신수양을 위한 품새를 보여주었다.

홍겨운 음악과 율동이 어울어져 관중들로부터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은 건강품새 청년부경연에는 용인대(임용호외 4명)팀이 출사와의 결부시킨 건강품새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산성체육관(송영기의 1명)은 전통무와 태권도를 조화시킨 건강품새로 태권도의 지평을 넓혔다.

인천대(장정주의 14명)는 춤사와와 태권도 기본품새를 조화하여 역동적이고 경쾌하면서도 우주의 탄생이나 화산의 폭발과 같은 웅숭음치는 힘을 분출시키는 건강품새로 관중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 강신철 6단 발격파 2년 연속 정상

1차 예선서 두께 2cm의 송판 3장을 격파하고 2차에 올라 4장을 격파하는데 성공, 최종전에 오른 발격파부문 장년부 우수상 수상자는 전기복(고산태권도장), 김현민(속초체육관), 강신철(남창체육관), 이해준(대구 동구도장)씨 등 4명으로 이중 최종전에서 5장의 송판을 격파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강신철씨 한명뿐이었다.

이로써 강신철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발격파부문 최고 위력을 자랑하는 최강자가 되었다.

종합격파 장년부 경연에는 제자리 모아서기 자세에서 360도 회전하며 두발로 머리위의 사과를 격파하는 고난도 기술을 보인 김희도씨(세계태권도선교회, 38세, 4단)와 태권도 한마당 출전을 위해 기구를 제작, 빨간벽돌 2매씩을 4곳에 고정시켜 손날 내려치기, 안손날치기, 바깥손날치기, 주먹격파 기술로 총 8매의 벽돌을 격파하는 기술을 보인 정병모씨(효성체육관)가 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여자부에는 정윤희(용인대), 임미화(경희대), 주명희(경희대) 3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는데 특히 임미화는 하단과 중단을 최적으로 찬뒤, 나래차기로 상단의 사과를 격파하며 여자 태권도인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



했다.

주먹격파 장년부에서 이해준(대구 동구도장, 7단)은 기와 16장을 깨뜨리는 기염을 토하며 최고의 위력을 과시했다.

높이 뛰어차기 경연은 1차에서 240cm 높이의 송판을 격파하고 2차전에 올라 250cm 높이의 송판을 격파하는데 성공한 최중진씨는 총 5명, 이중 최중진씨는 255cm 높이의 송판을 격파하는데 성공한 사람은 문순태(경북협회), 이성수(용인대), 정병민(경희대) 3명이었다.

## '94 태권도한마당, 국제적 규모로 확대

내년도 태권도한마당대회는 국내 260만회원은 물론 6개 해외지부(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브라질, 일본)의 태권도가족이 대거 참가하는 국제적 규

모의 태권도 큰잔치로 치루어지게 된다.

92년도에 전국 3700여개 태권도장과 학교의 250만 태권도 유단자를 대상으로 남녀노소 출전제한없이 태권도의 품새 및 격파경연대회를 창설함으로써 태권도의 생활체육의 발전, 확산을 도모해온 협회는 94년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태권도한마당을 국제적 규모로 개최하여 해외 동포 및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94 한국방문의해"를 기획,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한국관광공사는 두차례에 걸친 태권도한마당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진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한국스포츠이벤트를 대표하는 국제적 행사로 태권도 한마당을 후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내년도부터 태권도 한마당대회는 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도약하게 될 전망이다. **태권**

## 남녀 모두 종합 우승

제2회 베트남 국제 태권도선수권대회('93.9.24~26, 베트남 호치민)



베트남 태권도협회 주최로 호치민시 관당체육관에서 열린 제2회 베트남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선수단은 남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이번대회는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삼성전자가 2만달러를 후원함으로써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고취시킨 가운데 4개국에서 5개팀(베트남 1,2, 한국, 중화대북, 말레이시아) 선수 65명이 출전한 가운데 남녀 편급부터 웰터급까지 6체급씩의 경기가 펼쳐졌다.

한국은 남녀 5체급 경기에 참가해 남자선수 모두 금메달을 따내며 종합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도 금3, 은1개로 종합우승

을 차지했다.

### ▲ 선수단 명단

- 단장 : 강원식(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감독 : 김선규(경남태권도협회 전무이사)
- 코치 : 김진도(사당중학교 코치)
- 국제심판 : 김영철(대한태권도협회 심판분과부위원장)
- 남자선수
  - 석운용(용인대)
  - 박재완(경상대)
  - 권태호(춘천군청)
  - 안홍엽(용인대)
  - 성의천(국군체육부대)
- 여자선수
  - 양소희(천안여고)

- 모선영(한체대)
- 김은숙(용인대)
- 권혁실(용인대)
- 강해은(경성여실고)

### ▲ 종합성적 (남자부)

- 1위 : 한국(금5)
- 2위 : 베트남 1(금1, 은1)
- 3위 : 중화대북(은3)
- 4위 : 베트남 2(은1)
- 말레이시아(은1)

### (여자부)

- 1위 : 한국(금3, 은1)
- 2위 : 베트남 2(금2, 은1)
- 3위 : 베트남 1(금1, 은3)
- 4위 : 중화대북(은1)

## 북경, 심양, 하얼빈, 상해 등 중국의 대도시에서 태권도 시범

중화인민공화국 순회 태권도 시범(93.10.25~11.9)



대한태권도협회는 중국 국제우의 촉진회의 초청으로 중국에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여 중국의 대도시인 북경, 심양, 하얼빈, 상해 일원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며 중국에 태권도의 우수성을 인식시켰다.

태권도 국가대표시범단은 지난 10월 25일 출국 15박 1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11월 9일 귀

국하였다.

대한태권도협회는 92년도에 최초로 중국에 시범단을 파견하여 북경과 연변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 이래 올해 두번째로 태권도시범단을 파견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사기진작 및 태권도 불모지인 중국의 태권도 보급을 촉진시키는 물론 중국에 태권도협회 결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시범단 명단

- 단장 : 홍종수  
(대한태권도협회 부회장)
- 감독 : 노우종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부장)
- 주무 : 이춘현  
(문화체육부 사무관)
- 코치 : 이규형

(미동국민학교 태권도부 감독)

- 선수 : 이훈우 장창영 김성진  
오영화 한자훈 곽택용  
박종호 김중선 성낙훈  
허정행 장도영

### ▲ 시범일정

- 93.10.26(1차) : 북경체육사범 학교 시범
- 93.10.28(2차) : 북경 공정병예 당 시범
- 93.10.30(3차) : 심양 북능 군 인구락부 극장 시범
- 93.11. 1(4차) : 심양시 체육학원
- 93.11. 3(5차) : 하얼빈 흑룡강 대학 시범
- 93.11. 4 : 하얼빈 흑룡강성 체육위원회 방문
- 93.11. 5(6차) : 하얼빈 흑룡강 대학 시범
- 93.11. 7(7차) : 상해 체육사범 학원 시범

### 총 7차에 걸친 태권도 시범

태권도 시범단은 중국에서 7차에 걸친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북경에서는 북경체육사범학원에서 총장을 비롯해 학생 12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차 시범을 성공리에 마쳤고 북경공정병

예당에서 500명의 관중이 참여한 가운데 2차 시범을 가지는 등 북경에서의 성공적 시범을 통하여 중국내 체육 지도자들에게 태권도의 우수성을 깊이 인식시켰다.

이로 인하여 향후 중국 태권도협회의 결성, 한국인 사범의 파견 및 국제체육의교상 태권도의 올림픽체택 움직임에 관한 이해와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경에서의 시범을 마친 시범단은 심양으로 이동, 2차례의 시범을 보였다. 심양의 북능군인구락부 극장에서의 시범에서는 조선족 중학교와 사범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총 1400여명의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루어졌고 심양시 체육학원에서 450명이 참관한 가운데 태권도 고난도 시범이 위력적으로 펼쳐져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하얼빈으로 이동한 시범단은 하얼빈 흑룡강 대학에서 두차례의 시범을 보였는데 흑룡강 대학 학장, 체육회 임원, 유사 무술 단체장을 비롯해 조선족 교민 등 2000여명의 관중이 이를 지켜보았다.

심양 및 하얼빈에서의 조선족 동포를 대상으로 한 4차에 걸친 시범에서는 한국 최강의 무술스

포츠인 태권도의 위력을 시연하여 중국의 유사무술에 비하여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민족의 긍지를 일깨웠다.

상해에서는 체육사범학원에서 500명의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태권도 시범이 이루어졌다. 상해에서의 시범 후 시범단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홍구공원의 건학을 통하여 시범단원의 애국심을 고취하기도 하였다.

북경, 심양, 하얼빈, 상해 등 중국의 주요 4개 도시를 순회하며 태권도 시범단이 보인 태권도 시범은 중국인 및 조선족 동포들의 깊은 관심을 이끌어내었다.

광대한 중국의 인구 및 면적에 의하여 중국에서의 태권도 보급이 단시간내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향후 한중 문화교류증진에 참여하고 있는 조선족 동포를 중심세력으로 하여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의 태권도장 개설 및 태권도협회의 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의 태권도시범단 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태권도**

## 태권도 斷想



김웅윤 / 연합통신 체육부기자

태권도와 나와는 그리 인연이 없을 듯 했다. 지난 여름 덜컥 태권도를 담당하지 않았던 들 어릴 적의 어슴프레한 기억만이 태권도에 대한 향수를 가능케할 뿐 그 뒤로는 딱히 태권도장을 찾았다거나 할 까닭이 없었다.

20여년전 나는 소도시-지금은 어엿한 직할시가 돼 엑스포까지 열렸지만- 한 번두리의 심약한 사내아이에 불과했었다.

국민학교 3년인 듯 한 여름날이었다.

담임선생님은 운동장 한 곳에 늘어선 능수버들 아래 옹기종기 모인 우리들에게 방학책을 나눠주시며 "내일부터 바로 이곳에서 태권도 교실이 열리니 게으르지않은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는 다들 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 때문에 들에 달려가 감자를 캐시던 아버지를 졸랐고 어른께서는 태권도 도복을 구입하러 시내 은행동 운동구점으로 나가셔야했다.

그후 나는 하루를 멀다하고 미류나무가 양쪽으로 늘어선 신작로를 따라 이른 아침을 뛰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50이 넘었을까한 중년사범님이셨다.

태권도의 각 계파가 통합되기 전이었으므로 나는 문무관이라고 씌여진 흰색 도복을 입었다.

광목으로 된 도복은 가끔 어머니가 풀까지 먹여 깔끔했지만 나는 겨루기를 할 때마다 학교 운동장의 다소 축축한 마사토 흙 위로 나뒹굴곤 했다.

자존심이 강한 탓이었던지 내가 씹씩덜 때마다 사범님은 큰 손으로 흙을 털어주시며 전라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됐다, 됐다"를 연발하시곤 했다.

폼새는 자신있었으나 당시 유약했던 나에게 겨루기는 늘 부담이 되었다.

아버지보다 무서웠던 사범님은 또랑또랑한 우리들을 위해 간혹 벽들을 격파했다.

내겐 충격적이었고 어린 욕심에 집 마당 한구석에서 벽들을 깨려다 으레 '안티프라민'을 발라야



제대후 얼마전까지도  
내 손지갑에는 논산 훈련소때  
찍은 땀냄새 줄줄 흐르는 증명사진이  
붙여진 단증이 있었으나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했다.

그 때마다 사랑채에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아버지께서는 “저런 승헌... 상것들이나 하는 짓을 하고있구면”하고 쇠락한 유생집안의 후손다운 말씀으로 일관하셨고 “글 안 읽고 헛 일을 하고있는” 나를 꾸중하는 일 역시 잊지않으셨음을 기억한다.

방학이 끝나던 날 나는 시내 국민학교 강당으로 가 승급심사를 받았다.

보호대도 없었고 워낙 날래지 못했던 나는 상대의 발차기에 걸려 경기장밖으로 떨어지기가 일수였고 졌다는 생각으로 분하기도해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내가 얻은 도복의 락색같은 흥(紅).

몇 급이었던지도 기억이 나지않는 것을 보면 당시 태권도에 대한 애정이 없었음이 틀림없다.

되돌아보면 그해 여름의 욕심은 친구녀석이 합기도를 한답시며 나를 만나기만하면 손목을 쥐고 어깨를 비틀고 하곤했던 심술에 대한 응징의 욕심에 불과했다.

그후 나는 중학교나 교고를 졸업할 때까지 가까

머리시절에도 태권도는 마냥 싱거웠다.

교교시절 한때李小龍에 홀려 지금은 우수라고 불리는 운동을 통해서야 어릴적 태권도에서 상했던 마음을 심리적으로나마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다.

대학을 중간쯤 마치고 입대하자 공항경비대에 배속됐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80년대초에는 우리 부대옆에는 공항테러방지를 위한 특공대가 있었는데 늘 주눅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모두 태권도 또는 유도 유단자들이었던 그들 덕에 우리는 막사주변에서 태극 몇장이니 금강형이니 하는 품새를 익혔으나 녀석들의 킁킁거림으로 해서 그 진지한 훈련은 허사가 됐고 그저 유단자가 되지 못하면 제대할 수 없다는 위협아닌 위협에 못이겨 유단자가 됐을 뿐이었다.

흰색도복은 커녕 우중충한 추리닝에 군화 또는 작업화를 신고 발차기를 했으니 우습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내들이 그렇듯이 그래서 나는 울며겨자먹기로 태권도 유단자다.

몇 천원 안되는 현역병의 월급을 촉내 국기원 단증을 교부받은 것은 고작 지난 81년께였을 것이다.

제대후 얼마전까지도 내 손지갑에는 논산훈련소때 찍은 땀냄새 줄줄 흐르는 증명사진이 붙여진 단증이 있었으나 언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른다.

태권도 유단자 증명이 없어졌으니 “녀석 사기친다”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나의 솔직한 태권도 이력서다. 이처럼 어쭙잡게 태권도와 의 인연을 갖고있는 나는 지난 12월에 처음 찾은 국기원 매트위에서 펼쳐지고 있던 국가대표 최중선발전에서 비로소 불꽃튀는 접전을 피부로 접하고서야 아 이런 것이있구나라는 실감을 갖게됐다. **▶**

# 유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목 차

- 1 태권도와 에너지 시스템
- 2 무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3 유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번 호)
- 4 유연성 향상과 스트레칭
- 5 태권도와 운동상해

태권도를 비롯하여 모든 운동은 최대의 효과 획득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트레이닝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85호부터 연재되는 체육과학연구원 윤성원 실장의 태권도 트레이닝 방법론은 선수를 육성하는 팀 지도자뿐 아니라 도장에서 일반 수련생을 지도하는 사범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효율적 지도」를 위한 훌륭한 텍스트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지난호에는 무산소성 파워 향상에 관한 트레이닝 및 측정방법에 대해 소개하였지만 이번호에는 심폐 지구력과 관련된 유산소성 파워에 관해 서술하고자 한다.

태권도 경기를 에너지 공급 및 활동차원에서 살펴 본다면 고강도에 의한 간헐적 운동양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즉 강도가 높은 운동을 운동 중간에 불완전 휴식을 가지면서 운동을 실시하는 운동양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양식의 에너지 공급방법은 무산소성 에너지 체계에 의한, 즉 해당과정(lactic system)에 의한 에너지 공급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기술이나 경기력 향상만을 위한 운동이라면 이러한 에너지 공급방법을 향상시켜야겠지만, 태권도란 운동을 통해 체력 단련 및 신체의 전반적 발달을 위한 운동으로서 실시한다면 각 도장에서의 일반인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은 유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즉 심폐지구력을 함께 발달시키는 운동도 계획되어야 한다.

운동을 오랜 시간동안 실시하면 산소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때 운동량이나 강도에 따라 산소소비량과 섭취량은 불균형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 힘들다는 느낌과 함께 운동을 멈추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장기간 운동수행시 산소섭취량과 소비량의 차이가 크지 않다.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능력은 최대 유산소성 능력의 지표인 산소섭취능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이번호에는 산소섭취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

유산소성 파워는 짧은 시간의  
트레이닝에 의해 향상을 기대해서는  
안되고 장시간 동안 꾸준히 트레이닝을 실시할때  
기대될 수 있는 체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요한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소개하며 특히 도장에  
서 체력 단련을 위해 운동을 실시하는 일반인(어  
린이부터 성인까지)의 체력을 간접 비교할 수 있  
는 심폐지구력 평가표를 제공하고자 한다.

### 1. 유산소성 파워의 정의 및 측정평가

유산소성 파워는 장시간동안 비교적 강도가 높  
은 운동 수행시 개인의 산소(O<sub>2</sub>) 이용능력을 의  
미한다. 산소 이용능력은 유산소성 파워라는 용어  
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심폐 지구력, 스테미나  
등의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런 유산소성 파  
워는 지난 85호에 서술한 바와 같이 장시간동안  
운동 수행시 근육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은  
산소 시스템(O<sub>2</sub> system)에 의해 에너지를 생성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산소 섭취능력이 우  
수해야 유산소성 파워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이와 관련된 폐, 심장, 혈액 및 혈관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  
다.

유산소성 파워는 짧은 시간의 트레이닝에 의해  
향상을 기대해서는 안되고 장시간 동안 꾸준히 트  
레이닝을 실시할때 기대될 수 있는 체력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기술적 요인이 많이 포함  
된 체력보다 장기간 트레이닝을 실시하지 않으면  
쉽게 떨어지는 체력이기도 하다. 이러한 유산소성  
파워는 태권도의 경기력 측면과 관련된다면 무산  
소성 파워보다는 관여도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반적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도장을 이용하는 일반  
인에게는 꼭 필요한 체력인 만큼 지도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유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  
닝 방법에 대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2. 유산소성 파워 향상을 위한 트레이닝 방법

#### 1) 인터벌 트레이닝(interval training)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을 반복하면서 적절한  
휴식시간을 운동중간에 삽입하여 체력단련을 실  
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운동  
중간에 갖는 휴식시간을 어떻게 취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벌 트레  
이닝에 있어서 휴식방법은 완전휴식을 취하지 않  
고 가볍게 움직이면서 쉬는 방법과 휴식시간을 짧  
게하여 불완전한 회복을 갖고 다음 운동을 계속해  
서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1930년 고안  
된 방법으로 1952년 자토백선수가 장거리 부분의  
육상종목을 석권하면서 이 트레이닝의 효과를 증  
명한 바 있다. 최근에 이 방법이 100이나 200m  
거리를 비교적 빨리 뛰게 하고 휴식을 갖는 반복  
적 훈련에 의해 심장과 순환기능의 능력을 향상시  
키고 전신지구력을 향상시키며 이와 동시에 근력  
이나 스피드를 높이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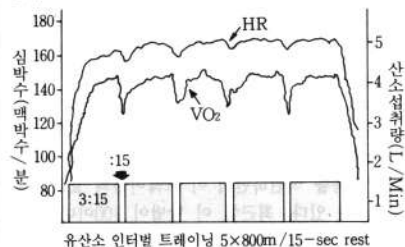
일반인의 경우 이때의 운동강도는 되도록이면  
산소부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고능력의  
70%이상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 이때 심박수는 135~155 정도 나타날 수 있도



유산소성 파워는 태권도의 경기력 측면과 관련된다면 무산소성 파워보다는 관여도가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전반적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는 꼭 필요한 체력인 만큼 유산소성 파워향상을 위한 트레이닝방법에 대해 프로그램을 계획 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복 운동강도를 결정하여 반복운동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반복횟수를 결정하는데 반복횟수가 적을 경우 트레이닝의 량이 적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를 결정할 수 없으며 반대로 많은 경우 과부하 트레이닝에 의한 운동피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심폐기능에 부하가 가할 수 있는 정도를 개인별로 파악하여 반복횟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도장에서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실시할 경우 가까운 학교 운동장이나 도장내외의 주변환경을 이용한 이러한 트레이닝도 계획한다면 전면적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그림-1) 인터벌 트레이닝시 심박수와 산소섭취량의 변화

(그림-1)은 유산소성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 800m 거리를 중간 휴식 15초를 가지면서 5회 실시할때 심박수와 산소섭취량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 그림은 체력이 우수한 선수 및 성인의

프로그램이니 만큼 도장에서 유산소성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어린이의 경우 거리를 200m로 줄이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2) 지속주 트레이닝(continuous training)

이 트레이닝은 1960년 독일 반·어켄에 의해서 고안된 방법으로 운동시 휴식없이 지칠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호흡 순환기능 즉 유산소성 파워를 향상시키는 데 대표적인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주 트레이닝을 실시할때 결정해야 할 점은 운동강도이다. 일반적으로 지속주의 운동강도는 최대산소섭취량의 75% 이상으로 지칠 때까지 실시하는데 지도자가 선수가 아닌 수련인을 대상으로 지속주 트레이닝을 실시한다면 도장내 또는 운동장에서 최대 속도의 80% 정도의 속도로 지칠때까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요즘 천식, 비만인이 많기 때문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 5분정도 더 뛰게 하고 중단시키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속주를 실시하기에 다소 시설이나 환경이 없다고 판단되면 30내지 40cm의 벤치를 만들어 오르내리기 운동을 5분이상 계획하여 규칙적으로 운동 프로그램으로 활용한다면 유산소성 파워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지속주 트레이닝을 실시할때 지도자가 주의할 점은 적정 페이스를 결정하는 것인데 지도할 때 수련인의 컨디션 상태, 운동시 호흡상태 등

오늘날 지속주 트레이닝은  
유산소성 파워를 향상시키는데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속주 트레이닝을 실시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운동강도를 결정하는  
일이다.

을 점검하여 적당한 거리를 개인별로 처방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3) 인터벌 - 서킷 트레이닝(interval-circuit training)

이 방법은 최근에 유산소성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스칸디나비아에서 처음 실시된 트레이닝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인터벌 트레이닝과 서킷 트레이닝을 혼용한 방법으로 전체 뛰는 구간이 400m 이상의 거리를 선정하여 각 구간을 돌면서 조깅이나 런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순환서킷다는 의미에서 서킷 트레이닝과 비슷하지만 중간중간에 불완전한 휴식인 적절한 휴식이 있기 때문에 근력, 유연성, 근지구력 및 심폐지구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트레이닝은 자연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도장보다는 주위환경을 이용한 방법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 4) 컴바인드 트레이닝(combine training)

이 트레이닝은 일련의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균형있는 체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일명 복합 트레이닝방법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컴바인드 트레이닝은 운동에서 많이 나타나는 동작 즉, 던지기, 퓌뛰기, 달리기, 뒤틀기, 들어 올리기, 당기기 등 신체 운동 동작의 전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트레이닝은 기초체력의 요소를 모두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 체력 향상 운동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최근 시설이 좋은 태권도 도장에서는 이 방법을 이용한 수련인의 체력을 향상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기구가 이용되기 때문에 컴바인드 트레이닝을 실시할 때 지도자의 약간의 기술적 지도가 요구되므로 트레이닝에 참가하는 수련인의 컨디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컴바인드 트레이닝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동작종류 | 내 용                            | 운동동작                               |
|------|--------------------------------|------------------------------------|
| 이동운동 | 수평 또는 수직으로 이동운동                | 앞·뒤로 달리기, 높이뛰어오르기, 방향바꾸기           |
| 회전운동 | 몸의 중심축을 이용하여 상·하·전·후·좌·우로 회전하기 | 몸구르기, 토끼뿔뛰기, 몸 기꾸러 세웠다 구르기, 옆으로 뛰기 |
| 전동운동 | 모래, 메디스볼 주고 받기                 | 서로 던지고 받기                          |
| 협력운동 | 2인1조가 되어 이동운동                  | 상대편 넘기, 들어 올리기, 무릎대우기              |

이 컴바인드 트레이닝은 위와 같은 양식을 몇가지 구성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운동 시간은 15~20분 정도가 적당하나 어린이의 경우 10분이내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또한 4주마다 횟수를 증가시켜 운동부하가 점증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5) 파트랙 트레이닝(fartlek training)

이 트레이닝은 변화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한 트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운동을 통한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는 책임이 있으며 수련인의  
체력 향상을 위한 많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연구할 책임이 있다.

레이닝으로 지속주와 같은 방법인 일정한 페이스로 지칠 때까지 달리는 운동으로 호흡순환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운동 방법이다. 1940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 방법은 주로 흙인 땅이나 잔디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도장에서 기술 및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지도할 때 지도자는 한달에 한번쯤 한강 고수부지나 인근 산을 이용한 파트랙 트레이닝을 실시한다면 수련인에게 심적인 변화 및 새로운 환경에 의한 기분 전환 등으로 운동생활에 의한 체력증진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레이닝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지도자는 사회적으로 운동을 통한 국민체력을 향상시키는 책임이 있으며 수련인의 체력 향상을 위한 많은 트레이닝 방법에 대해 연구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3. 간단한 방법에 의한 유산소성 파워 측정 방법

유산소성 파워를 스포츠 과학적으로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트레드 밀이나 자전거 부하 장치에서 지칠 때까지 운동을 실시할 때 호흡개수를 이용하여 최대 산소섭취량, 산소부채량 등을 측정하여 평가 내리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이러한 시설은 특수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에서 전반적인 체력을 측정 평가하기 위해서는 Cooper가 개발한 12분 달리기를 통한 평가 방법이 비교적 신뢰도 있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표-1)는 12분 동안 달렸을 때 운동 수행한 거리를 이용하여 지구력을 평가하는 방법인데 어린이에 대한 평가는 없기 때문에 중학교 이하의 학생은 1200m 달리기에 의한

(표-1) Cooper의 유산소성 파워 평가 지표

| 구 분 | 달리기 연령별(남자) |             |             |             |
|-----|-------------|-------------|-------------|-------------|
|     | 30세이하(m)    | 30~39세(m)   | 40~49세(m)   | 50세이상(m)    |
| 가   | 1,600이하     | 1,520이하     | 1,360이하     | 1,280이하     |
| 양   | 1,600~1,984 | 1,520~1,824 | 1,360~1,664 | 1,280~1,584 |
| 미   | 2,000~2,384 | 1,840~2,224 | 1,680~2,064 | 1,600~1,984 |
| 우   | 2,400~2,474 | 2,240~2,624 | 2,080~2,464 | 2,200~2,384 |
| 수   | 2,784이상     | 2,624이상     | 2,464이상     | 2,384이상     |

| 구 분 | 달리기 연령별(여자) |             |             |             |
|-----|-------------|-------------|-------------|-------------|
|     | 30세이하(m)    | 30~39세(m)   | 40~49세(m)   | 50세이상(m)    |
| 가   | 1,520이하     | 1,360이하     | 1,200이하     | 1,040이하     |
| 양   | 1,520~1,824 | 1,360~1,664 | 1,200~1,504 | 1,040~1,344 |
| 미   | 1,840~2,144 | 1,680~1,984 | 1,520~1,824 | 1,360~1,664 |
| 우   | 2,160~2,624 | 2,000~2,464 | 1,840~2,304 | 1,680~2,144 |
| 수   | 2,624이상     | 2,464이상     | 2,304이상     | 2,134이상     |

태권도 운동은 경기력 측면에서  
 체력요인을 분석한다면 유산소성 파워보다는  
 무산소성 파워를 더 요구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 체력 향상을 위해 생활에 매우 필요한 유산소성 파워,  
 즉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표-2) 1200m 달리기 수행시간을 이용한 유산소성 파워 평가 (남자)

| 연령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국 1 | 412.5 이하 | 412.6~457.5 | 457.6~535.6 | 535.7~627.5 | 627.6 이상 |
| 국 2 | 373.5 이하 | 373.6~431.3 | 431.4~499.7 | 499.8~601.0 | 601.1 이상 |
| 국 3 | 359.0 이하 | 359.1~394.7 | 394.8~488.6 | 488.7~604.0 | 604.1 이상 |
| 국 4 | 342.0 이하 | 342.1~389.5 | 389.6~462.5 | 462.6~545.0 | 545.1 이상 |
| 국 5 | 328.0 이하 | 328.1~363.6 | 363.7~412.4 | 412.5~467.0 | 467.1 이상 |
| 국 6 | 319.2 이하 | 319.3~351.4 | 351.5~391.0 | 391.1~434.4 | 434.5 이상 |
| 중 1 | 304.5 이하 | 304.6~343.0 | 343.1~380.0 | 380.1~427.0 | 427.1 이상 |
| 중 2 | 291.6 이하 | 291.7~324.4 | 324.5~375.0 | 375.1~422.0 | 422.1 이상 |
| 중 3 | 297.6 이하 | 297.7~322.0 | 322.1~364.9 | 365.0~434.9 | 435.0 이상 |

(여자)

| 연령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
| 국 1 | 441.6 이하 | 441.7~484.0 | 484.1~555.0 | 555.1~656.4 | 656.5 이상 |
| 국 2 | 423.9 이하 | 424.0~478.0 | 478.1~555.2 | 555.3~730.3 | 730.4 이상 |
| 국 3 | 388.1 이하 | 388.2~432.0 | 432.1~502.5 | 502.6~602.8 | 602.9 이상 |
| 국 4 | 391.4 이하 | 391.5~422.3 | 422.4~475.7 | 475.8~521.6 | 521.7 이상 |
| 국 5 | 369.0 이하 | 369.1~411.8 | 411.9~460.2 | 460.3~530.6 | 530.7 이상 |
| 국 6 | 372.6 이하 | 372.7~403.7 | 403.8~458.6 | 458.7~519.7 | 519.8 이상 |
| 중 1 | 370.2 이하 | 370.3~407.3 | 407.4~478.7 | 478.8~507.8 | 507.9 이상 |
| 중 2 | 363.0 이하 | 363.1~396.4 | 396.5~465.6 | 465.7~546.0 | 546.1 이상 |
| 중 3 | 369.0 이하 | 369.1~419.1 | 419.2~466.3 | 466.4~531.0 | 531.1 이상 |

운동수행시간을 이용하여 평가(표-2) 내리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태권도 운동은 경기력 측면에서 체력요인을 분석한다면 유산소성 파워보다는 무산소성 파워를 더 요구하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장하는 또는 체력을 단련하는 목적으로 태권도장을 이용하는 일반인에게 한쪽에 치우치는 체력향상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면적 체력 향상을 위해 생활에 매우 필요한 유산소성 파워, 즉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운동 프로그램이 계획

되고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는 여러 방법이 이용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비교적 높은 운동강도에 의한 12분 이상의 지속적인 운동이 효과적이나 도장운영의 여건에 따라 앞에 제시한 유산소성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트레이닝 방법을 응용하여 계획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운동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자! 가까운 도장 주위의 환경을 살펴 보자. 그리고 수련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한바퀴를 추위를 이기고 환경에 적응하는 변화있는 운동지도를 시도해 보자... **태권도**

##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

### 목 차

- ① 글을 준비하며
- ② 체육관현황 및 우리의 모습
- ③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
- ④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
- 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나는 두번의 연재를 통해 태권도 체육관 현황과 프로그램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이번호에는 “프로그램작성 및 유의사항”에 대해 2회에 걸쳐 적어볼까 한다.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어졌다고 믿는다.

그러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태권도를 잘 가르치기 위함”일 것이다.

가르치는 교육자에게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며 일관성있는 교육을 위해서”, 피 교육자에게는 보다 흥미롭고 유익하게 배울 수 있고 배우고자 하는 동기 유발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또한 태권도를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겠다.

1회와 2회의 글이 나간후 많은 분들에게 연락을 받았다.

여러내용의 연락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일선 체육관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말한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자료라고 느끼면서도, 막상 준비하려 하면 시간도 없고 자료나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나도 많은 부분에서 같이 느끼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선비」 회원들과 같이 준비했던 “월간 교육 계획표”를

### 이 종 천/

-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졸업
- 태권도 프로그램 연구회 회원
- 경기도 여주 오학체육관 관장

예문으로 준비해보았다(사실 이 부분은 공개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이 예문을 게재하며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남의 옷을 그대로 입으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어렵고 바쁘더라도 반드시 각 체육관의 특성과 개성을 살리고 주위 환경과 수준을 고려해 각 체육관에 맞는 새로운 옷을 제작할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먼저 프로그램을 작성하려면 여러사항들이 준비되어야 하며 그 준비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1.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구성요소(software)
2.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적용 횟수와 적용시기의 구분
3. 교육대상의 구분
4. 프로그램 작성의 단위
5.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6. 개인카드

위의 사항들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프로그램 작성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1.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구성요소

태권도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그 구성요소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본동작

둘째, 품새

셋째, 겨루기이다.

위의 세 가지 중 어느 한 부분에 교육이 편중되거나, 한 부분이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하겠다. 물론 의도적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시합이 있는 달(月) 이거나, 시범대회가 있는 경우처럼 그 달의 월간목표에 따라 조금 중점적인 교육내용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다.

첫째, 기본동작이라는 구성요소

먼저 기본동작-「기본동작」에 대한 충분한 사전 논의와 정리가 필요하나 후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논하기로 하고 기본동작에 대한 정의나 개념의 정리는 이 글을 읽고 교육내용을 작성하려는 각 체육관의 사범 몫으로 남겨 두기로 하겠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라는 바이다-의 정의는 체육관 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나하나 낱기술 모두를 기본동작이라 말하는 체육관도 있고 품새를 구성하는 모든 동작을 기본동작이라 말하는 체육관도 있고 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특별히 구성하거나 정리해놓은 체육관도 있을 것이다.

기본의 개념은 동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동작에 얼마나 큰 비중을 두고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본동작 구성자체도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특히 품새지도와 많은 연계지도 및 구성과 배열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품새라는 구성요소

품새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은 하지않겠으며 프로그램 작성의 한 예로 대신할까한다.

태극 1장은 18개의 동작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동작을 3개나 4개 단위로 구분해 지도할 수도 있으며(실제로 태권도 품새 지도는 3동작씩 구분 연결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89년 태권도학회 발표논문중에서-) 이때 중요한 것은 기본동작의 연계지도이다.

또 태극품새는 품새마다 새로운 동작이 있는데 그 새로운 동작을 기본 동작에 포함시키고 기본동작 수련후 품새를 지도하는 식으로 교육내용을 작성하는 것이다.

셋째, 겨루기라는 구성요소

태권도에 있어서 겨루기(시합)라는 요소는 오늘의 태권도가 있게 한 주역이다. 겨루기라는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한번 겨루기, 세번겨루기, 약속겨루기, 맞춰겨루기, 스텝겨루기, 미트겨루기, 호구겨루기, 실전겨루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겨루기를 교육프

## 2 장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맵 (Ⅲ)

로그랩 작성시 포함시키려면 기본동작요소중 발차기라는 요소와 연계성을 갖으면 좋겠고 겨루기라는 구성요소 중에도 습득기술에 단계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밖에도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많은 구성요소들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 보면 요가, 체조, 낙법, 호신술, 체력훈련, 체력측정, 레크레이션, 미니올림픽, 일일스승(사범) 등의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이밖에도 각 체육관 고유의 구성요소가 있을 것이며 그 구성요소가 많고 다양할수록 좋을

것이다.

## 2.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적용횟수와 적용시기(시간) 구분

위와같은 구성요소가 준비되었다면 계획표를 작성해보기로 하자.

먼저 구성요소들 가운데 우선순위와 교육빈도의 차이를 두어야한다.

그 구성내용은 월간 목표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으나 처음에 말한 기본동작, 품새, 겨

(표-1) 월간 교육 시간표(예)

|   | 기 본 운 동                        |          | 품 새                     |          | 겨 루 기                 |          | 심사대비운동                          |          |
|---|--------------------------------|----------|-------------------------|----------|-----------------------|----------|---------------------------------|----------|
|   | 1 주                            | 시간       | 2 주                     | 시간       | 3 주                   | 시간       | 4 주                             | 시간       |
| 월 | •올림픽경기(1)<br>•체력운동(1)          | 25<br>10 | •올림픽경기(2)<br>•체력운동(2)   | 25<br>10 | •올림픽경기(3)<br>•체력운동(3) | 25<br>10 | •올림픽경기(4)<br>•전체품새(5)           | 25<br>10 |
| 화 | •기본동작(2)<br>•보조운동(1)<br>(체력운동) | 25<br>10 | •품 새(1)<br>•기본동작(4)     | 20<br>15 | •품 새(3)<br>•기본동작(6)   | 20<br>15 | •품 새(5)<br>•겨루기(4)              | 20<br>15 |
| 수 | •호신술(1)<br>•발차기(1)             | 25<br>10 | •호신술(1)<br>(낙법)<br>•발차기 | 20<br>15 | •특수동작(2)<br>•품 새(4)   | 20<br>15 | •품 새(6)<br>•발차기(6)              | 25<br>10 |
| 목 | •특수동작(1)<br>•발차기(2)            | 25<br>10 | •발차기(4)<br>•품 새(2)      | 20<br>15 | •발차기(6)<br>•보조운동(3)   | 20<br>15 | •개인 또는 급별별로 체육관수련계획에 맞춰 개인지도 할것 |          |
| 금 | •주말평가(1)<br>•겨루기(1)            | 25<br>20 | •주말평가(2)<br>•겨루기(2)     | 20<br>15 | •주말평가(3)<br>•겨루기(3)   | 25<br>20 | •모의심사                           |          |
|   | 기본운동<br>10분 삭제                 |          |                         |          | 금요일 기본운동<br>10분 삭제    |          |                                 |          |

### 구성내용(예)

- 기본동작 : 6회
- 겨루기 : 4회
- 주말평가 : 3회
- 특수운동 : 2회(요가)
- 보조운동 : 4회(일일사범)
- 월요일올림픽 : 3회(체력단련)

### 주간교육목표

- 발 차 기 : 6회
- 호 신 술 : 3회
- 품 새 : 6회
- 1주 : 기본운동
- 2주 : 품 새
- 3주 : 겨루기
- 4주 : 『심사대비종합평가』 개인운동

(표-2) 일일시간표(예문)

\*일일시간기준표이며 이는 주간 또는 월간 계획시간표도 같다.

| 월간목표 |      | 월 주 일 |             |            |        |        |         |
|------|------|-------|-------------|------------|--------|--------|---------|
| 주간목표 |      |       |             |            |        |        |         |
| 요일   | 준비운동 | 기본운동  | 태 권 도       | 보조운동       | 평 가    | 정리운동   | 출석및생활지도 |
| 월    |      |       | 기본동작        | 월요일림픽      |        |        |         |
| 일    |      |       |             |            |        |        |         |
| 시간   | 0-5" | 5-15" | 15" - - 45" |            | 45-50" | 50-55" | 55-60"  |
| 소요시간 | 5"   | 10"   | (20')(15')  | (20')(15') | 5"     | 5"     | 5"      |
| 화    |      |       | 기본운동        | 보조운동       |        |        |         |
| 일    |      |       |             |            |        |        |         |
| 시간   |      |       | 15"         | 20"        |        |        |         |
| 수    |      |       | 발 차 기       | 호 신 술      |        |        |         |
| 일    |      |       |             |            |        |        |         |
| 시간   |      |       | 10"         | 25"        |        |        |         |
| 목    |      |       | 발 차 기       | 특수동작       |        |        |         |
| 일    |      |       |             |            |        |        |         |
| 시간   |      |       | 20"         | 15"        |        |        |         |
| 금    |      |       | 겨 루 기       | 주말평가       |        |        |         |
| 일    |      |       |             |            |        |        |         |
| 시간   |      |       | 20"         | 15"        |        |        |         |

루기 등이 추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연계지도이다. 즉, 가능한 어제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의 교육내용이, 오늘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내일의 교육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다.

표-1(월간계획표)에서 보는 바와같이 기본동작 6회, 품새6회, 발차기 6회, 겨루기 4회 등.

태권도 3대 구성요소에 교육의 중심이 잡혀 있음을 볼 수 있다.

적용시기는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주 월요일에는 25분을 할애해서 월요일림픽을 계획했는데, 월요일림픽은 주로 체육관 안에서 할 수 있는 실내종목 및 게임을 주축으로 구성

한다.

예를들면 닭싸움, 말타기, 꼬리잡기, 실내축구, 체력시험, 팔씨름 등

월요일 운동은 이를을 윈 관계로 신체 운동 능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고 수련생들의 수련분위기 또한 무겁기 때문에 적용과 준비를 위해 이시기를 택하였으며 적용시간은 표-2를 참고 하길 바란다.

적용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평가와 준비운동, 정리운동 인데 준비와 정리운동은 다음호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기로 한다.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는 말 그대로 그날 배운 운동내용을 수련생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으며,



## 도장에서와 교육프로그램 (Ⅲ)

(표-3) 교육내용(예)

| 월 목 표 |  | 주 월 일   |   |  |  |
|-------|--|---|---|--|--|
| 주간목표  |  |   |   |  |  |
| 월 주   | 유 치 부  | 국 민 부   | 중·고·일반부   |  |  |
| ○요일   | 소단원 : 이어 달리기<br>내 용 : 편을 두팀 또는 세팀으로 나뉘서 반환점을 돌아오게 한다. 편은 운동시간에 따라 두팀 또는 세팀으로 나눈다.  | 소단원 : 달리기<br>내 용 : 유치부와 동일. 단체전과 개인전을 병행한다.   | 소단원 : 달리기<br>내 용 : 유치부와 동일. 단체전과 개인전을 병행한다.   | 소단원 : 달리기<br>내 용 : 유치부와 동일   |  |
| 교육    | 지도방법 : 편이 선두를 출발선에 준비시킨후, 구령으로 출발, 또는 손뼉을 친다.  | 지도방법 : 유치부와 동일하며 짝을지어 출발 시켜도 됨  | 지도방법 :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유치부와 동일)  | 지도방법 :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유치부와 동일)   |  |
| 내용    | 응용게임 : 이어달리기, 닭싸움 자세로 달린다(발교대) 혼자 달린다, 강시 달리기(두발은 모아붙이고 두손은 "앞으로 나란히"를 한상태로 반환점을 돌아온다), 개구리 달리기(두발과 두손을 바닥에 대고 개구리처럼 달린다), 땀땀돌고(7바퀴) | 응용지도 : 출발자세를 변화 시킨다. 예) •뒤로 누워있다 출발 •앞으로 엎드려 있다 출발 •갈때는 정면을 향해 뛰고 올때는 뒤로 뛰다 •제자리 멀리 뛰기 •닭싸움 하듯 한발들고 갔다오기(발교대) | 응용지도 : 출발자세를 변화 시킨다. 예) •뒤로 누워있다 출발 •앞으로 엎드려 있다 출발 •갈때는 정면을 향해 뛰고 올때는 뒤로 뛰다 •제자리 멀리 뛰기 •닭싸움 하듯 한발들고 갔다오기(발교대) | 응용지도 : 제자리에서 두발들어 가슴단기를 10회 실시후 출발 •제자리에서 두발을 벌리면서 점프한 후(10회) 출발 •허리 숙이고 제자리 달리다 뒷사람이 손뼉치면 출발 •앞으로 출발해서 뒤로 달려온다. | 응용지도 : 제자리에서 두발들어 가슴단기를 10회 실시후 출발 •제자리에서 두발을 벌리면서 점프한 후(10회) 출발 •허리 숙이고 제자리 달리다 뒷사람이 손뼉치면 출발 •앞으로 출발해서 뒤로 달려온다. |
| 달     | 주의사항 : 절서를 잘 지켜야 함   |   |   |  |  |
| 리     |  |   |   |  |  |
| 기     |  |   |   |  |  |

그룹과 개인의 이해 정도를 짧은 시간에 스스로에게 인지시켜주는 시간이다.

### 3. 교육대상의 구분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서 교육내용을 작성했다 해도 그 교육내용을 모든 수련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상을 체육관 현실에 맞게 유치부, 국민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구분하고 크기는 유치부와 국민부 저학년, 그리고 국민부 고학년과 중고등부로 구분하는 것이 좋겠다. 한 예를 들어 오늘 보조운동 내용이 달리기라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이 매일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예문 표3 참조>

또한 오늘 교육내용이 낙범이라 한다면 지도 대상에 따라 당연히 교수법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 **태권** <다음호에 계속>



# DISK 관리 요령

박성욱/대한태권도협회

디스크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플로피 디스크와 하드 디스크이다.

플로피 디스크는 5.25 인치와 3.5 인치가 있는데 5.25 인치는 외부로 부터의 손상도 쉽고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잘 보관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이 디스크는 디스크 드라이브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정보를 읽고 쓴다.

디스크 껍질에는 정보를 읽고 쓰기 위한 구멍이 나있는데 이곳을 손으로 만지거나 하여 손상이 가면 디스크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 파괴될 수 있는 위험 천만한 일이 발생할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디스크를 디스크 자켓에다 항상 보관하는 것도 디스크 관리 요령의 하나이다.

3.5 인치 디스크는 디스크 외부를 보호하는 케이스가 딱딱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어 5.25 인치 보다는 보관이 한결 수월 하다.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사용자의 경우 디스크에 담겨있는 정보를 더 이상 입력하고 싶지 않을 때나 실수로 정보가 지워지지 않게 하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다.

실제로 컴퓨터는 DEL 이라는 강력한 정보 지움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애써 작성한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인생 허무를 느끼고 싶지 않으려면 DEL 명령을 하기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5.25 인치 디스크 우측 상단에는 조그마한 홈이 파져 있는데 이 홈을 쓰기 방지용 테이프로 막아 버리면 새로운 정보가 더이상 기록되지도 않고 또한 기존의 정보 또한 지워지지 않는다.

3.5 인치는 5.25 인치와 반대로 뒷면의 조그마한 홈을 옮겨 구멍을 만들면 5.25 인치의 홈을 막

는 기능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해 놓고 화일을 지우거나 복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

Write protect error writing Drive A  
Abort? Retry? Fail?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 심중팔구 쓰기방지용 테이프로 홈을 막아놓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 쓰기방지용 테이플를 제거한 후 R을 누르면 된다.

하드디스크의 경우는 특별한 쓰기 방지용 기능이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속담도 있듯이 하드 디스크는 플로피 디스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정보를 담을수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기하지 않으면 낭패를 보는 수가 많다.

정보가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화일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화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화일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뒤지는 일이 생긴다.

별로 필요하지 않거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화일은 지워버려야 한다. 필요없는 화일들이 많으면 나중에 정작 사용 해야할 Program을 메모리 용량 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단 화일들을 지울 때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지우는 습성을 갖도록 하자.

비슷한 내용의 화일이나 관련 있는 화일은 같은 디렉토리 안에 묶어서 관리하는 것이 지금이나 나중에 위해서도 좋은 관리 요령이다. **테크**

## 대한태권도협회

###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4체급 출전

대한태권도협회는 94년 10월에 개최될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경기에 남자 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 4체급을 파견키로 했다.

'94 아시안게임은 10월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 34개종목에 337개의 메달을 놓고 아시아인들의 스포츠제전이 펼쳐진다. 태권도는 '86 서울아시안게임 이후 다시 정식종목에 채택됨으로써 남자 8체급 경기가 10월8일과 9일 히로시마 아카위드 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지게 된다.

협회는 92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때도 남자부 4체급 플라이, 페더, 웰터, 헤비급을 파견하여 금3 동1을 따냈고 93년 제1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도 위의 체급에서 금 3개를 따내는 등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경기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함으로써 '94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 획득이 확실한 위의 체급 대표를 파견키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이 4체급만 대표선수를 파견하게 된 것은 세계연맹에서 출전선수를 1개국 4체급으로 제한한데 따른 것이다.

아시안게임에 파견될 대표 4명은 94년도 상반기에 국가대표 체급별 1, 2위자 4명의 통합체급으로 경기를 통해 선발키로 하

였다.

### 제 11 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대표 선수단 파견

대한태권도협회는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원에서 94년도 남녀 태권도 한국대표선수 최종 선발대회를 갖고 남녀 체급별 1위자를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파견키로 했다.

94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 니노이 아키노체육관에서 개최될 제 11 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남녀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은 남자가 1회부터 지난 10회 대회까지 계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면서 중주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쳐왔으며 여자부는 90년 9회 대회때 중화대륙에 밀리며 우승을 놓친 바 있다.

#### <대표선수명단>

##### (남자부)

- ▲ 핀 급: 최용훈(동아대)
- ▲ 플라이급: 고동환(한국체대)
- ▲ 밴 텡 급: 김현용(경희대)
- ▲ 페 더 급: 양재철(한국체대)
- ▲ 라이트급: 정광채(한국체대)
- ▲ 웰 터 급: 김경훈(동성고)
- ▲ 미 들 급: 박종범(국군체육부대)
- ▲ 헤 비 급: 김재경(국군체육부대)

##### (여자부)

- ▲ 핀 급: 양소희(천안여고)
- ▲ 플라이급: 이순영(용인대)
- ▲ 밴 텡 급: 진용순(한국체대)
- ▲ 페 더 급: 신동선(성신여대)
- ▲ 라이트급: 강해은(경성여실)

# 경기용품 공인규정 개정 시행, 선수안전 위해 지속 관리키로

대한태권도협회는 선수들의 안전과 각종 경기용품의 과학화를 위해 92년4월 제정한 「경기용품 공인규정」을 지난 5월 새로이 개정하고 각 공인업체들의 경기용품 제작의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

리하고 있다.

공인에 참여한 업체는 상무사를 포함해 6개사로, 협회는 이들 제품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용품을 수거, 규격준수를 확인하고 있으며, '94년에도 용품들의 질적 개선을 위해 더

욱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협회는 태권도가 세계화되면서 경기용품도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하도록 계속 독려할 방침이다.

## ▲ 각종 공인용품 규격

| 용품   | 머리보호구  | 몸통보호구   | 팔다리 보호대                                | 살 보 대  |
|------|--|---|--|--|
| 보호부위 | 머리 및 양볼  | 가슴 및 허복부를 포함한 몸통둘레의 2/3이상, 서혜부  | 팔뚝 및 정강이 부위의 2/3이상                     | 허복부 및 국부 (남·녀 2종)  |
| 색 상  | 청, 홍(2종)   | 흰색바탕, 득점부위는 청, 홍(2종)  | 흰 색                                    | 흰 색  |
| 주요재질 | •NBR스펀지(두께18mm 경도18°)  | •몸통방력판:EVA스펀지(13mm, 경도60°)<br>•서혜부:NBR스펀지(18mm, 경도15°)<br>•외피:비닐(0.6mm) | •EVA또는NBR스펀지(10mm, 경도18°)              | 남자용<br>•방력판:플라스틱(경도 90°)<br>•외피:EVA또는NBR스펀지(경도18°)<br>여자용<br>•NBR스펀지(12mm) |
| 기 타  | •고막과얼방지위해 귀부분은 배기공이 있을것<br>•공기유통을 위해 다수의 구멍을 둘것<br>•땀호흡방지위해 착탈식면 머리띠를 머리둘레의 1/3이상 부착 | •몸의 부착이 용이 하도록 할것<br>•공기유통을 위해 다수의 구멍을 둘것<br>•벨크로 부착                    | •부착후 들지않도록 할 것<br>•공기유통을 위해 다수의 구멍을 둘것 | •신체접촉부위는 충격흡수를 위해 스펀지를 덧붙일것<br>•공기유통을 위해 다수의 구멍을 둘것                        |

## •전광판

1. 컴퓨터 시스템
2. 표출  
체급(영/한글), 선수명, 경기시간, 로스타임(예비음 포함) 등·감점, 경고, 합산점수, 시차과 종료료를 알리는 부저.
3. 기능

득점점의 합산, 2명이상의 부심이 인정한 득점의 인지. 기타 부심의 득점인정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

## •매트

1. 재질  
고압축 EVA(무취, 무향), 경도 52~54°
2. 색상

연두색(경기지역), 주황색(경계지역)

3. 두께 및 크기  
두께 20mm, 가로·세로 1×1m
4. 무늬  
완자형(20×20mm)요철

# 태권도 소식

- ▲ 웰 터 급 : 조향미(경희대)
- ▲ 미 들 급 : 박선미(상명여대)
- ▲ 해 비 급 : 김태희(성신여대)

## 경희대·용인대 태권도학과 3급 심판교육 실시

대한태권도협회는 경희대와 용인대 태권도학과 졸업생과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3급 심판 교육을 실시하였다.

10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용인대에서 실시한 이번교육에는 경희대 31명, 용인대 93명 등 총 124명이 참가했다.

경기규칙 및 바람직한 심판상에 대한 이론강의는 강원식 협회 전무이사가, 실기강의는 기술심의회 심판분과 위원회가 실시하였다.

## 서울특별시협회

### 제 12 회 서울시장기 대회

서울시 협회는 지난 10월 27일~30일까지 4일간 국민원에서 국민학교 228명, 중학교 242명, 고등학교 107명, 대학부 16명, 일반부 12명, 여자부 34명 총 640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12회 서울시장기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였다.

본대회는 그동안 서울 시내에 산재한 100여개의 각급학교 선수들이 소속 학교의 명예와 개인의 자존심을 걸고 매 경기마다 한치의 양보와 후회없는 일전을 벌였다.

대회결과 단체우승은 국교부 광희국교, 중등부 덕원중학교, 고등부 리라공고, 대학부 한국체대, 일반부 지하철 공사, 여자부는 송곡고등학교가 각각 차지하였다.

각 부별 우수선수 2명에게는 서울시체육회에서 체육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장학금 수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체전 여자부, 95년 정식종목

전국체육대회 태권도 여자부 경기가 95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된다.

12월16일 올림픽회관에서 개최된 대한체육회 이사회는 95년 대회(16회)부터 여자축구, 여자역도와 함께 여자태권도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키로 확정하였다.

이번 여자부의 정식종목 채택은 대한태권도협회가 89년부터 대한체육회에 건의해 온 결과로, 93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어 광주체전에서 13개 시도(인천, 경기 불참) 84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전국체전에 첫선을 보였다.



▲서울시장기 대회에서 열전을 펼친 선수들

- ▲국교부 : 최일용(강덕국교)  
유성호(광희국교)
- ▲중등부 : 최진규(덕원중)  
김상길(덕원중)
- ▲고등부 : 이정석(송곡고)  
방영선(리라공고)
- ▲대학부 : 문성대(한국체대)  
김태수(경원대)

인기를 실감하였으나, 한편으로 수련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의 내실화, 지도자의 수범적 자세, 자기 체육관 수련생만을 위한 이기적 태도, 영리를 위한 운영 방법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신년도에는 부단한 자기 성찰

과 탐구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생활체육의 영역을 확실하게 구축하길 다짐하였다.

## 서울-모스크바 친선 태권도 대회

서울시와 모스크바시는 작년 11월 8일 모스크바에서 친선대회를 갖고 태권도의 국제화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인적 교류와 기술 교류를 하기로 협정함에 따라 금년에도 10월 27일~30일까지 4일간 국기원에서 친선 대회를 가졌다.

모스크바협회는 비타리 박 협회장을 단장으로 임원 10명, 선수 7명의 선수단이 서울시 협회의 초청에 의해 내한해 10월 22일~11월 30일까지 체류하면서 서울시 지하철 공사 선수단과 경기를 치루면서 종주국 선수들의 경기 기술을 연수하였다. 내년도에는 모스크바에서 경기를

## 93년도 승품·단 심사 종료

서울시는 지난 12월 12일(일) 국기원에서 제408회 승품 심사대회를 끝으로 '93년도 승품·단 심사대회를 마감하였다.

이날 심사대회는 겨울 날씨답지 않게 포근한 날씨속에서 1품 응시자만 2,515명에 달하는 최대규모였으며 동반 학부모 등 약 8,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심사규모나 분위기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의



▲서울-모스크바간 친선대회를 가졌다.

갖가지 협의하였으며 양 협회는 태권도를 국제 스포츠 종목으로서 홍보하여 올림픽 종목 채택

을 앞당기는데 노력하자고 약속하였다.

〈서울 박노규·김종오 편집위원〉

## 부산 전일체육관, 개관 30주년 기념 경로위안잔치

전일체육관에서는 개관 30주년을 기념하여 경로위안잔치를 열었다.

지난 11월 14일(일) 오후 1시 30분 전포 3동에 위치한 덕명여상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전일체육관 개관 30주년기념 경로위안잔치는 부산전구의회 의원이며 부산협회 전무이사겸 전일체

육관의 이근우관장이 주최하여 관내 700여명의 노인을 초청하여 성대히 개최하였다.

개회식에서 이지역 출신인 김정수 국회의원의 축사, 부산직할시의회 부의장 도종이의원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날 초청된 노인들은 푸짐한 음식과 선물속에서 전일체육관 출신인 김호진의 진행으로 남백송씨의 흘러간 노래와 전일체육관 관원들의 무용과 태권도시범을 보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경로위안 잔치를 마려한 이근우 전일체육관 관장(부산협회 전무이사)

## 부산 북부경찰서 무도장, 국교생에 개방

### 어린이 태권도 교실운영

부산 북부경찰서에서는 지난 6월20일부터 경찰서 4층 무도장을 관내 국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태권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북부서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무도장을 개방, 경찰의 대민 친절과 봉사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좀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위해 해당학교에 협조문을 보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하는 어린이를 물색하고 이지역에서 오랫동안 태권도도장을 운영해 온 구포체육관 윤성노관장에게 지도를 요청하였다. 이에 윤관장은 태권도의 활성화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밝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시키고자 이를 쾌히 승락하였다. 또한 수련생

어린이들을 위해 주머니를 털어 50벌의 태권도 도복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동안 수련생들을 지도한다. 태권도 수련생은 모두 48명으로 인근 삼덕국교, 덕포국교, 삼락국교 4~6학년생으로 이중에는 이효정(13·삼락국교 6학년)양 등 여학생도 16명이나 된다. 윤관장은 「어린이들이 경찰서라 무서워하며 망서릴줄 알았는데, 오히려 신기해 하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모습이 대견스럽다」고 한다.

태권도를 배우는 어린이들중에는 같은 층에 위치한 사무실문을 불쑥불쑥 열고 들락거리는 개구쟁이들도 꽤 있어 처음엔 뜻밖의 손님에 어리둥절해하던 보안·외사계 직원들도 이젠 친숙한 친구가 되기도 하였다. 처음 무도장 개방을 구상한 조한

성 경무과장은 「주민과 학교에서 호응이 좋아 수련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어린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러 왔다가 그냥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수 경찰서장은 「무도단련장을 개방하자 분위기가 훨씬 밝아졌으며 민원인도 어린이들이 들락거리는 경찰서에 부담을 덜 느끼고 직원들도 행동거지를 조심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어린이들의 또다른 즐거움은 북부서에서 미니버스로 자신들을 집앞까지 데리러오고 바래다 주는 것.

정복을 한 경찰아저씨가 운전하는 차를 탄다는 우물찬 기분에 일부터 동네를 두번 세번 돌아다다하며 때를 쓰기도 한다.

## 부산직할시협회

### 제5회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협회는 10월 24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제5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1,969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228, 2품 234, 3품 133, 1단 191, 2단 81, 3단 59, 4단 25, 5단 11명이다.

이날 심사대회장에서는 우수도장으로 선정된 체육관에 대한 표창이 있었으며 특히 제74회 전국체전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했다.

#### <수상자 명단>

이종웅(영도체육관)

김영미(가야중앙체육관)

김대훈(금정체육관)

손창수(대당체육관)

#### <전국체전 입상자 명단>

금메달: 강창모(부산시체육회)

강동국(동아대)

동메달: 이임수(개교고)

김정수(개교고)

김민우(부산체고)

이현석(동아대)



# 태권도 소식

장현옥(연세체육관)

## 제13회 부산직할시장기 구별대항 및 개인대회

부산협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19일(3일간)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부산직할시장기 구별대항 및 개인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450여명이 참가하여 각구별단체대항 및 개인전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에 앞서 김자진 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13번째를 맞는 이대회가 태권도 보급발전은 물론 부산태권도 발전의 기층을 마련하는데 기여해오고 있어 매우 뜻깊은 대회라고 말하고 각자 도장에서 갖고 닦은 기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선전분투할 것을 당부하였다.

### <각부별 종합 우승>

국교부 : 해운대구  
중등부 : 해운대구  
고등부 : 부산진구  
일반부 : 동래구  
여자부 : 북구

### <우수선수상>

중등부 옥순재(동구)  
고등부 김정수(북구)  
일반부(사하구)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 대구직할시험회

### 승품·단 심사대회

대구협회는 10월 26일 제5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총 1,8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로 보면 1품-1,014명, 2품-465명, 3품-111명, 1단-125명, 2단-57명, 3단-26명, 4단-9명, 5단-3명이다.

### 우수대회 겸 시장기 대회

대구협회에서는 지난 11월 20일 "93년도 우수선수권대회 겸 제8회 시장기대회"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 경일중은 웰터급 이종관이 우승한 것을 비롯, 6체급에서 금메달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고 국교부에서는 아양국교가 금메달 3, 은메달 4, 동메달 1개로 종합패권을 차지했으며, 일반부 경기에서는 경북산업대가 금메달 3개로 우승을 안았다.

### (단체성적)

#### ▲ 국교부

- 1위 : 아양국
- 2위 : 문성국
- 3위 : 달서국

#### ▲ 중등부

- 1위 : 경일중
- 2위 : 오성중
- 3위 : 대서중

#### ▲ 고등부

- 1위 : 경상공고
- 2위 : 오성고
- 3위 : 배영고

#### ▲ 일반부

- 1위 : 경북산업대
- 2위 : 영진전문대

## 대구협회 이해준이사

# 태권도 한마당서 주먹격과 위력과의

“격파의 힘이란 기본동작을 얼마나 제대로 수련하는가에 달려있다.”

제2회태권도한마당서 맨주먹으로 기와 16장을 완파해 장년부(35세이상) 주먹격파부문 1위를 차지한 이해준(46·대구동구도장·대구협회이사)씨.

손날격파부문서도 붉은 벽돌 2장을 깨 2관왕에 올랐고 지난해 첫대회서도 손날 및 발격파서 모두 우승, 국내 태권도 격파부문 1인자임을 과시한 이해준씨는 경력 31년의 공인 7단.

“요즘 태권도가 지나치게 격투기위주로 흘러 아쉬움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품새 및 격파에 주안점을 둔 태권도한마당이

마련돼 기쁘다.”

이해준씨는 매일 새벽5시에 기상, 30분간의 단전호흡과 하루 3시간씩의 개인 단련에 몰두하고 도장에서 1백30여명의 수련생을 지도하는 것이 하루의 일과. 도장운영이 생업이고 딸(은주·22)과 아들(관영·14)도 모두 3단의 유단자여서 전가족이 태권도와 함께 살고 있기도 하다.

“후배들과 힘 달을때까지 기량을 겨루고 싶다”는 이해준씨는 “태권도가 올림픽종목에 채택된다하더라도 겨루기와 품새 등 기본기수련이 병행발전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3위 : 구룡체육관, 성광체육관  
(대구 정우덕 편집위원)

## 인천직할시협회

### 북구청장기 대회 개최

인천시 북구청은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명신여고 체육관에서 제1회 북구청장기 태권도대회 겸 국민학

교 품새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태권도협회(회장 윤치영) 산하 북구태권도협회(회장 원교식)가 주최하고 북구청이 후원한 이 대회는 5백 54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태권도 인구 저변확대와 사회생활체육발전을 위해 제질이 있는 어린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키 위해 열린 이날 대회는 국교부 및 남중, 여중등부 등으로 나뉘어 11체급별 토너먼트로 펼쳐졌다.

또 국민학교 대항 품새대회는 각 학년별로 지정품새인 「고려」와 「태극 4장부터 8장」까지 1개 품새를 선택,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년별로 우승팀을 가려 금, 은, 동상이 시상됐다.

한편, 경기에 앞서 이용기북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전통무술인 태권도의 정신을 살려 체력단련 차원을 넘어서 인격수양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경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남동구 대회 창설

인천시 태권도협회(회장 윤치영) 산하 남동구태권도협회(회장 김영진)는 지난 11월21일 문성역상체육관에서 제1회 남동구국회의원기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인천시태권도협회를 비롯 남동구체육회, (주)경인매일신문후원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태권도 저변확대는 물론 남동구태권인들의 화합과 단결의 촉제마당으로 펼쳐져 지역주민은 물론 태권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제1회 남동구국회의원기태권도대회장인 강우혁국회의원(민주자유당남동구위원장)을 비롯 민봉기남동구청장, 이현복 남동구의회회장, 시의회의원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남동구 거주 청소년 중 국기원 승품·단 소지자로 5백 4명이 출전, 그동안 같고 닦

# 태권도 소식



▲제1회 남동구 국회의원기 태권도 대회가 지난 11월21일 개최, 남동구 태권가족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경기에 앞서 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남동구태권도협회 창립이래 처음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남동구 체육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남동구태권인 저변확대는 물론 남동구태권인들이 합심하여 신한국창조건설에 적극 참여 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하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모두가 스포츠정신에 입각, 자기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여 강우혁대회회장은 『태권도는 우리의 국기로서 신체의 건강과 호신의 목적 뿐만 아니라 예절을 숭상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도」로서 국민의 사랑을 받기까지에는 사회체육지도자 여러분의 애정어린 노력과 국민여

러분의 끊임없는 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랑스러운 결과』라고 강조하고 이어 『남동구 역사상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대회를 통해 남동구에 많은 태권도 가족이 늘어나고 2천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우수한 태권도 선수가 배출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남동구태권도 가족들의 화합과 단결의 축제마당으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회 경기결과 남, 여 국민부 종합우승은 논현체육관, 장수국교가 각각 차지했다.

▲남자국민부 종합 1위 논현체육관, 2위 창덕체육관, 3위 인하체육관

▲여자국민부 종합우승 장수국교, 2위 성신체육관, 3위 논현체육관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 광주직할시협회

### 제74회 전국체육대회 주최, 태권도 종합 2위

제74회 전국체육대회가 93년 10월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직할시에서 질서와 화합을 이룬 가운데 성황리에 끝마쳤다.

만년 하위를 맴돌던 광주직할시는 개최지의 특성을 살려 종합 5위의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93년11월4일 광주시민회관에서 강영기 광주직할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각 경기단체 임원 및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가졌다.

태권도 부문 경기에서 작년 5위를 기록한 광주는 임원 및 선수단의 혼연의 노력으로 종합 2위의 성적을 기록하여 강영기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격려금 및 공로패를 수여하였다.

### 제6회 광주직할시장기 대회

93년 대회를 결산하는 시장기 태권도대회가 400여명의 초·중·고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11월6일과 7일 영주동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중·고등부는 막상막하의 기

량을 보여주었고 초등부는 17개 국민학교에서 선수들이 참가하여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가 어린학생들에게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입상학교 및 개인별 1위 입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학교부



▲시장기대회 국민학교부 시상식

- 1위 : 광주남국교
- 2위 : 광천국교
- 3위 : 상무국교
- 감투상 : 대자국교
- 장려상 : 백일국교

▲중등부

- 1위 : 문성중학교
- 2위 : 체육중학교
- 3위 : 북성중학교

▲고등부

- 1위 : 광주체육고
- 2위 : 국제고
- 3위 : 고려고



▲전국체전 주최도인 광주는 종합 2위를 차지했다. 강영기 광주직할시장에게 트로피를 전수하는 윤판석 전무이사.

# 태권도 소식

## 〈각 부 체급별 우승자 명단〉

▲ 초등부: 최연호, 채현호(상무국교), 김승태(학강국), 한서용(중흥국), 최홍식(대성국), 한강석(대자국), 이휴성(광주남교), 문창석(지산국교), 이장규(주월국교), 조기성(광주남교), 배준영(광천국)

▲ 중등부: 김진모, 김준모, 김중선, 고대수, 서성복, 최희성(체육중), 김재훈, 이형은, 김의철, 김남곤, 김정민(문성중)

▲ 고등부: 채익기, 정재훈(국제고), 김철민, 김영훈, 김부권(체육고), 김홍진, 염 균(고려고)

## 승품·단 심사대회

93년 마지막 행사인 승품·단 심사대회가 영주동 종합체육관에서 909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나타낸 응심자 중에서 우수자 10명을 선발하고 상장 및 트로피를 수여하고 격려하였다.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우리 민족의 숨결과 맥이 통하는 국기로서 태권도가 대전 체육발전의 견인차로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스포츠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대회는 이진수 임원장을 중심으로 임원선수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건의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특히 언론에서도 연일 크게 보도함으로써 태권도 홍보 효과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대전 태권도 발전에 공이 큰 조인길(대전전문대학생주임)씨, 우재용(어은국민학교교사)씨, 윤여진(시협회심판부차장)씨가 공로상을 수상했다.

## 〈단체우승〉

- ▲국교부: 흥룡국민학교
- ▲중등부: 오정중학교
- ▲고등부: 새일고교
- ▲대학부: 충남전문대학
- ▲여자부: 새일고교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 대전직할시협회

제5회 회장기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중부체육관에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초·중·고·대·일·여자부 총 664명이 참가하여 소속팀의 명예를 걸고 선전한 모범된 대회였다.

한용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 경기도협회

### 11월 심사서 2,535명 합격

경기도협회는 11월 10일 수원 실내 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2,535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1,336명, 2품 521명, 3품 117명, 1

단 335명, 2단 99명, 3단 78명, 4단 41명, 5단 17명이다.

## 강원도협회

###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강원도협회는 11월 5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여 유품자 492명, 유단자 284명 등 총 77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 충청북도협회

### 제 20 회 교육감기대회 개최

충청북도 교육감기 초·중·고등학교 태권도 대회가 지난 11월6일과 7일 단양읍에서 개최되었다.

단양은 청풍명월의 고장, 관광의 명소로서 대회사상 390여명이란 가장 많은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마쳤는데 각급 학교별, 체급별 우승자는 다음과 같다.

▲ 국교부: 김원태(충주성남), 반재회(괴산증평), 최길환(제천동명), 오학만(청주서원), 김광재(청주서원), 정동원(제천동명), 김성규(제원입석), 안성빈(제천동명), 이찬중(제천동명), 박기범(청주남성), 임대호(청주주성)

● 종합성적

1위: 제천동명국민학교

2위: 충주성남국민학교  
3위: 청주서원국민학교  
장려상: 제원입석국민학교

▲ 중등부: 신화강, 김종성, 신영재, 이종현(청주중), 이주용, 이완영(청주남중), 양순호, 신낙규(청주서원중), 김진희(단양매포중), 최복철(충북사대부중), 구범모(충북사대부중)

● 종합성적

1위: 청주중학교  
2위: 청주서원중학교  
3위: 단양매포중학교  
장려상: 제천동중학교

▲ 고등부: 임성규(제천고), 김항수, 김형호(청주기공), 유원철, 김현호(청주신흥고), 변영광(충북체육고), 오범수(충북체육고), 안정환(청원미원고)

● 종합성적

1위: 충북체육고등학교  
2위: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3위: 청주신흥고등학교  
장려상: 제천고등학교

▲ 여자부: 박효진(무극중), 김원화(오창중), 권지영(보은고), 홍진(문의중), 권영아(서원중), 최영열(제천농고)

### 승품·단 심사대회

지난 12월 5일 청주 중학교 강당에서 금년도 마지막 승품·단 심사대회가 있었는데 각 품·단별 응심자수는 다음과 같다.

1품 440명, 2품 162명, 3품 37명, 1단 200명, 2단 48명, 3단 32명, 4단 15명, 5단 7명, 총 904명이었다.

### '93 충북 체육상 후보자 추천

충청북도 체육회에서는 매년 연말에 본도 체육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나 선수에게 '충북 체육상'을 수여하는데 충북 태권도 협회에서는 체육상 후보자를 다음과 같이 추천하였다.

● 지도자상: 김상문

(청주서부체육관장)

● 우수선수상: 신보현(청주대) 민경환(청주대)

● 신인선수상: 김항수 (청주기계공고)

### 연말 정기 이사회 개최

연말을 맞이하여 충청북도 협회(회장 전종윤)는 12월 18일(토) 이사회를 개최하고, '93년도 사업보고 및 신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를 나누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충북협회 이사 및 종교연맹회장단 임원들이 부부동반한 가운데 선프라자에서 고급 부패음식을 대접 충북 태권도가족간의 우의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 충청남도협회

### 제 45 회 도민체육대회

# 태권도 소식

충남도민의 화합과 질서를 다짐하는 제45회 도민체육대회가 천안시에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주최측인 천안시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준우승은 보령군, 3위는 대천시가지 차지하였다.

## 제 11 회 도지사기대회

제11회 도지사기 시·군 대항 태권도대회를 11월 4일과 5일 이틀간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대천에서 도내 20개 시·군팀이 모두 참가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종합우승은 부여군, 준우승 당진군, 3위 금산군이 차지했다.

## 제74회 전국체육대회 5위 차지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남 대표선수들이 선전함으로써 지난해 9위에서 5위로 4단계 상승하여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 주었다. 협회는 이를 발판으로 삼아 94년도 대전에서 열리는 제75회 체전에서 3위를 목표로 강화훈련에 돌입하기로 했다.

〈충남 전병덕 편집위원〉

## 전라북도협회

임원 및 이사 보선

전라북도 태권도협회는 10월 5일 전북협회 임원 및 이사 약간명을 보설했다.

▲부회장: 이영기, 김장수, 최동일

▲이 사: 정일환

▲사무국장: 박영진

## 승품·단 심사대회

전북협회는 10월 31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93년도 5차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총 166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합격자수는 1품 687명, 2품 332명, 3품 45명, 1단 413명, 2단 127명, 3단 58명, 4단 1명이다.

## 제 30 회 전북회장기 대회

전북협회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4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30회 전북회장기 단체전 및 개인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다.

국교부, 중등부, 고등부, 여중부, 여고부, 일반부 경기로 펼쳐진 이번 대회의 최우수선수상의 영예는 김제북고의 이은정이 안았다.

(부별 우승자명단)

▲국교부: 유종철, 천세환, 서광진(군산남국), 정일석(덕일국), 전동후(김제국), 최진영, 김성철(무장국), 임태우(신안성국), 김기현, 김지용, 소형섭(금평국)

▲중등부: 임두일(군산동중), 신종학(전주중), 정길윤, 황길

재, 강창균(고창남중), 이대진, 고영섭, 김명수(함평중), 김강조(배영초), 김장수(전주남중), 전문성(봉안중)

▲고등부: 박명훈, 심 현, 장우영, 문병국(전주중앙고), 이병석(만경고), 이호영(김제북고), 김상우(영선고), 박영만(동암고)

▲여중부: 이미영(용지중), 김현미(공음국), 박정희, 전해경(옥구서중), 이신자(변산서중), 전정화, 박선화, 김정훈(홍덕중), 조양희(이일여중), 이우미(무주중)

▲여고부: 김보인, 손은경, 이은정, 정미화, 박정숙(김제북고), 서수미, 황정은(고창여고), 김희정(김제상고)

▲일반부: 유창석(풍남체), 정휘갑, 정희영(원광대), 오주상(서신체), 이봉환, 김대수, 손영석, 고창권(7공수)

#### (단체우승)

▲국교부: 군산남국

▲중등부: 고창남중

▲고등부: 군산중앙고

▲여중부: 홍덕중

▲여고부: 김제북고

▲일반부: 7공수

(지도자상 및 우수상)

▲국교부: 박명배, 서재규  
(군산남국)

▲중등부: 이종연, 김장수  
(고창남중)

▲고등부: 노석화, 김정훈  
(군산중앙고)

▲여중부: 이용구, 이봉환  
(홍덕중)

▲여고부: 박장규, 황정은  
(김제북고)

▲일반부: 조형훈, 이봉환  
(7공수특전여단)

### 미국 대표팀 초청 친선경기

전북협회는 미국 주니어대표 및 국가대표선수단을 초청, 친선경기를 가졌다. 또한 타이거태권도 시범단(25명)을 초청, 시범대회를 실시하여 전주 실내체육관에 모인 5천여 관중 및 태권도인들을 열광시켰다.

전북협신 이상철 미국협회 차기 회장 및 박동근 박연희 사범 등이 이끈 미국대표팀은 전북태권도의 영광 재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전북태권도 지도자들의 정기적인 미국초청, 전북태권도 회관 건립 지원, 초·중·고·대학으로 연계되는 선수육성 지원, 전북출신 사범들의

미국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94년 2월에 미합중국 콜로리다주 올림픽 훈련원에서 개최되는 U·S 오픈 대회에 전북협회 임원 15명을 정식으로 초청하여 미국과 전북의 태권도인의 우의를 다질 계획이다.

### 제2회 이리시 회장기대회

전라북도 태권도 동호인의 화합과 친목의 한 마당인 이리시 태권도협회장기 전북 시·군협회 초청대회가 이리시 공설운동장에서 11월 20일 개최되었다.

평소 태권도의 생활체육화와 시민 체력향상,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도와 선도활동에 애써 온 전라북도내 관장 사범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화합과 친목을 도모했다.

전북 협회 유기대 회장은 대



제30회 회장기 타기 대회 및 미국대표팀 초청 친선교류경기 1993. 10. 31



# 태권도 소식



회준비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리시 김용균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도장간에, 지도자간에, 선후배간에 친목을 강화하여 더욱 단합된 전북 태권도협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태권도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다같이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본 대회는 각 시·군협회로 팀을 구성하고 축구·족구·릴레이 3개 종목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작년도 우승팀인 전주 시협회가 연속 2회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종목별로는 축구에 군산시 육구군협회가 족구는 전주시 협회가 릴레이는 군산시 육구군협회가 차지하였고, 최우수 개인선수상에 전주 금암체육관 김일남관장, 미기상에는 육구체육관 석영환관장이 각각 차지했다.

(전북 정철 편집위원)

## 전라남도협회

조영기 부회장 전남도문화상 수상

전남협회 조영기 부회장이 전남 문화상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조영기부회장은 태권도 8단의 고단자로 전남태권도협회부회장, 전남체육회 이사를 맡고 있으며 전남 체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조영기

▲ 1938년 8월 27일생

▲ 태권도 8단

▲ 현재 대한태권도협회 감사

전남체육회이사

전남태권도협회 부회장

KBS광주총국 기자.

## 승품·단 심사대회

전남협회는 10월 9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839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유품자는 1품 342명, 2품 149명, 3품 27명 등 518명이며, 유단자는 1단 179명, 2단 84명, 3단 38명, 4단 19명, 5단 1명 등 총 321명이다.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 경상북도협회

### 최우수선수 선발대회

경북 태권도 협회는 93년도 한해동안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들의 힘겨루기 각축전인 최우수선수 선발대회를 11월 1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경북체육회 관계자 및 각 체육관 관장 그리고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대회에는 초등부 79명, 중등부 70명, 일반부(고등부, 대학부, 일반부통합)59명, 여자부 15명, 총 223명이 출전해 열전을 펼쳤다.

이날 입상한 부별 최우수선수는 다음과 같다.

- ▲초등부: 이창은(양정국)
- ▲중등부: 노구갑(경북체중)
- ▲일반부: 이동훈(영친고)
- ▲여자부: 박정미(문경고)

## 제1회 경산시 협회장기 대회

경산시 태권도 협회가 주최하고 경산시 체육회와 (주)경산향토 신문사가 후원한 제1회 경산시 태권도협회장기 대회가 11월 7일 경북체육중·고등학교 실내 배구장에서 많은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부 113명이 출전해 각 체육관 대항으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날 권경보회장은 대회를 통해 지난해 태권도협회가 창설되어 오늘 제1회 대회를 성대히 치루게된 태권도인의 자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대회를 통하여 경산시 태권도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자고 당부하였다.

특히 이날 대회는 조영재(경산체육관 관장) 임원장을 비롯해 경산시협회 임원들이 만반의 대회준비로 처음 치루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대회 최우수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자전거 한대가 부상으로 전달되었다. 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 ▲1위: 개양체육관
- ▲2위: 올림픽체육관
- ▲3위: 경산체육관
- ▲장려상: 옥산체육관
- ▲감투상: 장산체육관
- ▲최우수선수상  
이영경(경산체육관)

## 제12회 포항시 협회장기대회

제12회 포항시 태권도 초·중·일반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10월 10일 태권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대회사에서 이무형 회장은 우리지역은 우수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나 최근 경기침체, 우수선수 미확보 등으로 태권도 활성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창단된 대동중학교 태권도부의 창단을 축하하며 지역인들이 단결하여 태권도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당부 했다.

총 141명이 출전한 본대회에서 시범부는 삼성체육관이 우승하고 초등, 중등, 일반(고등부포함)부에서 백호체육관(관장: 권태원)이 우수한 실력으로 부별 경기 모두를 우승하여 화제가 되었다. 시범 및 경기 성적은 다음과 같다.

- ▲시범부  
1위: 삼성체육관  
2위: 충무체육관
- ▲초등부  
1위: 백호체육관  
2위: 충무체육관

- 3위: 동부체육관
- 4위: 삼성체육관
- ▲중등부  
1위: 백호체육관  
2위: 동양체육관  
3위: 삼성체육관
- ▲고·일반부  
1위: 백호체육관  
2위: 남부체육관  
3위: 삼성체육관  
4위: 청룡체육관
- ▲최우수선수상

- 임원준(백호, 초등부)
- 이창호(백호, 중등부)
- 김재현(백호, 일반부)
- ▲지도상  
권태원(백호, 초등부)
- 이태정(동양, 중등부)
- 정연옥(남부, 고·일반부)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

## 경상남도협회

---

### 제9회 교육감기 대회

제9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시군교육청 대항 국민학교대회가 11월13일 마산실내 체육관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 창원시가 종합 우승, 울산시가 준우승, 마산시가 3위를 차지하였다.

- ▲체급별 우승자 명단: 이충기, 김익중, 임준호(창원시), 하정민, 석호권, 김준열(울산시), 서해진(거창군), 유창길(장승포시), 조홍근(합안군), 안영재(마산시), 서영호(진주시)

# 태권도 소식

## 10월 승품·단 심사

경남협회는 10월 5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1,719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유품자는 1품 978명, 2품 290명, 3품 49명 등 총 1,317명이며 유단자는 1단 218명, 2단 92명, 3단 46명, 4단 30명, 5단 16명 등 총 402명이다.

---

## 제주도협회

---

### 회장배 대회 남주중 우승

서귀중이 제9회 회장배전도태권도대회에서 태권도 명문 남주중을 따돌리며 우승했다.

그리고 최우수선수상은 김진구(중문중)가 수상했다.

서귀중은 19일 제주시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금7, 은2, 동5개를 휩쓸어 금1, 동2개에 머문 남주중을 2위로 밀어내며 올 시즌 4관왕의 대업을 이룩했다.

서귀중앙고는 초등부 경기에서 금3, 은1, 동3개를 획득, 우승했다.

또 남주고교도 고등부 경기에서 금5, 은3, 동1개를 따내 정상 을 고수했다.

서귀중은 이날 11체급중 7체급을 석권했다.

한편 박재만제주도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은 이번대회에 격려금 30만원을 기탁했으며 양세훈회장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

신규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종합전적)

#### ▲초등부

1위 : 서귀중앙교

2위 : 제주동교

3위 : 대정교

#### ▲중등부

1위 : 서귀중

2위 : 남주중

3위 : 아라중

#### ▲고등부

1위 : 남주고

2위 : 제주제일고

3위 : 오현고

## 승품·단 심사대회

제주협회는 지난 9월 6일 정기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439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219명, 2품 128명, 3품 23명, 1단 23명, 2단 25명, 3단 14명, 4단 5명, 5단 2명이다.

---

## 재호주협회

---

### 제4대 회장에 곽재영씨 선출

재호주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8월 21일 호주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곽재영씨를 선출했다.

곽재영씨는 1988년도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해온 8단의 고단자이다.

전임 하종상씨는 재호주 대한 체육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재호주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사임하였다. 재호주 대한태권도협회의 새롭게 구성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 장: 곽재영
- ▲ 부 회 장: 이내함
- ▲ 전무이사: 김명만
- ▲ 기획이사: 채종문
- ▲ 경기이사: 정용률
- ▲ 상벌이사: 김운석
- ▲ 심판이사: 김중수
- ▲ 재무이사: 박우진

주소: P.O.Box 600 MIRANDA NSW 2228 AUSTRALIA

전화: 02-524-9560(회장),  
02-728-7096(전무이사)  
FAX: 02-728-4627

## 국기원

연수원 오대영과장, 생활체육진흥휴공 표창 수상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연수원 오대영과장이 태권도생활 체육 지도자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93년도 생활체육진흥 휴공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90년 2월 23일 태권도 사회체육 지도자연수원으로 지정되어 3급 사회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 90년도에 414명, 91년도에 550명, 92년도에 203명, 93년도에 447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바 있다. **태권도**

## 태극마크 꿈꾸는 차세대 주역

—제주도 태권도 MVP 김신규(중문중)—

『태권도에 입문, 처음으로 최우수선수상을 타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을 쌓아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9회 회장배전도태권도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며 2백62명의 참가선수중 1명에게만 주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신규(중문중)의 소감이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았던 김신규는 이번대회에

서도 자신의 주무기인 뒤차기로 상대방 선수들을 모두 가볍게 누르고, 웰터급 정상에 올라 영예의 상을 수상했다.

강정국교 4학년때 태권도에 입문한 김신규는 『득점찬스는 놓치지 않는게 장점인 반면 주무기인 뒤차기를 자주 남발해 상대방 선수에게 작전을 노출시키는 것이 단점』이라며 『내년에 태권도 명문인 남주고에 진학, 단점을 보완해 기필코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태권도 소식

## 10월 승품·단 심사

경남협회는 10월 5일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1,719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유품자는 1품 978명, 2품 290명, 3품 49명 등 총 1,317명이며 유단자는 1단 218명, 2단 92명, 3단 46명, 4단 30명, 5단 16명 등 총 402명이다.

---

## 제주도협회

---

### 회장배 대회 남주중 우승

서귀중이 제9회 회장배전도태권도대회에서 태권도 명문 남주중을 따돌리며 우승했다.

그리고 최우수선수상은 김진구(중문중)가 수상했다.

서귀중은 19일 제주시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 중등부 경기에서 금7, 은2, 동5개를 휩쓸어 금1, 동2개에 머문 남주중을 2위로 밀어내며 올 시즌 4관왕의 대업을 이룩했다.

서귀중앙고는 초등부 경기에서 금3, 은1, 동3개를 획득, 우승했다.

또 남주고교도 고등부 경기에서 금5, 은3, 동1개를 따내 정상 을 고수했다.

서귀중은 이날 11체급중 7체급을 석권했다.

한편 박재만제주도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은 이번대회에 격려금 30만원을 기탁했으며 양세훈회장은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

신규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 (종합전적)

#### ▲초등부

1위 : 서귀중앙교

2위 : 제주동교

3위 : 대정교

#### ▲중등부

1위 : 서귀중

2위 : 남주중

3위 : 아라중

#### ▲고등부

1위 : 남주고

2위 : 제주제일고

3위 : 오현고

## 승품·단 심사대회

제주협회는 지난 9월 6일 정기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하고 439명의 유단품자를 배출했다.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219명, 2품 128명, 3품 23명, 1단 23명, 2단 25명, 3단 14명, 4단 5명, 5단 2명이다.

---

## 재호주협회

---

### 제4대 회장에 곽재영씨 선출

재호주대한태권도협회는 지난 8월 21일 호주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곽재영씨를 선출했다.

곽재영씨는 1988년도부터 호주 시드니에서 태권도장을 운영 해온 8단의 고단자이다.

전임 하종상씨는 재호주 대한 체육회장에 당선됨으로써 재호주 대한태권도협회장을 사임하였다. 재호주 대한태권도협회의 새롭게 구성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 장: 곽재영
- ▲ 부 회 장: 이내함
- ▲ 전무이사: 김명만
- ▲ 기획이사: 채종문
- ▲ 경기이사: 정용률
- ▲ 상벌이사: 김운석
- ▲ 심판이사: 김중수
- ▲ 재무이사: 박우진

주소: P.O.Box 600 MIRANDA NSW 2228 AUSTRALIA

전화: 02-524-9560(회장),  
02-728-7096(전무이사)  
FAX: 02-728-4627

## 국기원

연수원 오대영과장, 생활체육진흥유공 표창 수상



국기원 태권도 지도자연수원 오대영과장이 태권도생활 체육 지도자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93년도 생활체육진흥 유공 문화체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은 90년 2월 23일 태권도 사회체육 지도자연수원으로 지정되어 3급 사회체육지도자 교육을 실시, 90년도에 414명, 91년도에 550명, 92년도에 203명, 93년도에 447명의 지도자를 배출한 바 있다. **태권도**

## 태극마크 꿈꾸는 차세대 주역

—제주도 태권도 MVP 김신규(중문중)—

『태권도에 입문, 처음으로 최우수선수상을 타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훈련을 쌓아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제9회 회장배전도태권도대회에서 발군의 기량을 선보이며 2백62명의 참가선수중 1명에게만 주는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김신규(중문중)의 소감이다.

올해 전국소년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받았던 김신규는 이번대회에

서도 자신의 주무기인 뒤차기로 상대방 선수들을 모두 가볍게 누르고, 웰터급 정상에 올라 영예의 상을 수상했다.

강정국교 4학년때 태권도에 입문한 김신규는 『득점찬스는 놓치지 않는게 장점인 반면 주무기인 뒤차기를 자주 남발해 상대방 선수에게 작전을 노출시키는 것이 단점』이라며 『내년에 태권도 명문인 남주고에 진학, 단점을 보완해 기필코 국가대표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침체빠진 전북태권도 부흥에 최선

미국 대표팀 이끌고 고향을 방문한 박동근, 박연희, 이상철 사범



왼쪽부터 박연희 미국협회고문, 유기대 전북협회회장, 이상철 미국 협회차기회장

『전북태권도의 영광재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북출신 재미태권도기물 박동근(56), 박연희(53), 이상철 사범(47)이 33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미국 주니어대표 및 국가대표선수단을 이끌고 고향을 방문, 전북대표와 친선대회를 가진 후 돌아갔다.

특히 이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전북태권도사범의 정기적인 초청과 태권도회관건립지원등 최근 다소 침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전북태권도의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약속.

박동근씨는 미국태권도협회 코치분과위원장, 박연희씨는 부위원장을 거쳐 93세계태권도선수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이상철씨는 내년부터 임기가 시작될 협회장에 피선돼 취임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권도를 통해 모두 명성과 부를 동시에 구축, IOC등 세계스포츠계에서도 실력자로 부상하고 있다.

전북 직계 선후배로 나란히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이들 중 최고 선배인 박동근씨는 고향이 고향.

60년대초 도미, 박연희씨와

이상철씨는 물론 수많은 전북출신 사범들의 정착을 위해 헌신적인 도움을 줬던 그는 차기 한인회장을 노리고 있을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정읍감곡이 고향인 박연희씨는 미국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인 박연환씨의 형으로서 '93 세계선수권대회에 23명의 IOC위원들을 참관도록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차기회장에 피선된 이상철씨는 김제만경이 고향.

79년부터 88년까지 미국대표팀 헤드코치, 84년부터 92년까지 미국협회사무총장을 역임하는 등 미국태권협회 차세대 선두주자로 공인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방문은 금의환양인 셈.

그러나 이들 방문의 실재목적은 침체에 빠져들고 있는 전북태권도의 부흥을 지원, 60~70년대 전성기를 재현시키자는 데 있다.

이차기회장은 『7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대표 8체급중 6체급은 전북 몫이었고 전북에선전이 바로 국가대표 최중선발전이었다』고 회상한 뒤 『전국체전때면 깊은 관심을 갖고 고향 후배들의 활약을 지켜보고 있으나 기대에



▲ 미국 대표팀 환영식

못미처 안타깝다」고 전복출신 재미태권도인들의 심경을 대변했다.

이차기회장은 이어 「이번에 방문한 박동근·박연희선배를 중심으로 미국의 전복출신 사범들이 고향태권도의 부흥을 위해 무엇인가 기여해야 되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내년초부터 구체적이고 대대적인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복태권도의 회생을 위해 이들이 구상하고 있는 첫 사업은 전복사범들의 정기초청.

내년 2월부터 매년 15명가량의 전복사범들을 초청, 재미사범들의 의욕적인 활동상을 보여 주고 자극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초·중·고·대학으로 연계되는 선수육성체제를 수립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의 최종계획은 전복사범들의 미국진출 지원.

박연희사범은 「전복은 불과 1백여 도장에도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미국서 활동중인 한국사범은 5천명, 이중 전복출신은 5백여명에 이른다」고 밝힌 뒤 「태권도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아직도 진출 전망이 밝다」고 강조했다.

박사범은 특히 「동양계 미국인중 백인들로부터 Sir(씨)라고 경어를 받고 있는것은 태권도사범이 유일할 것」이라고 사회적

신분을 소개한 뒤 「60~70년대 막강사단을 구축한 뒤 미국에 진출한 전복출신 사범들이 미국 태권도를 주도하는 등 질적인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어 후배들의 진출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들이 전복태권도의 부흥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계획은 대규모 태권회관의 건립 지원.

재미 전복출신 사범들의 뿌리 찾기와도 연관되는 이 사업에 대해 이들은 「전복태권도는 발생지나 선수 배출면에 있어서 중주국 한국태권도의 발생지나 같다」며 「전복태권도를 상징할 수 있는 회관건립이 절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도태권도협회가 회관건립을 추진한다면 미국의 전복출신사범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 모금운동을 펼쳐 공사비의 40% 이상을 지원하고 건립 후에는 제자들의 견학을 추진, 태권도 성지로 가꾸겠다」고 약속했다.

전복태권도협회 유기대회장은 「재미사범들의 의욕적인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수립하겠다」며 「이 계획이 나오면 전복태권도가 과거황금기를 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

〈전북 정철 편집위원〉



광주 동신체육관

“우리는 꿈나무 태권도 가족”

-한가족 6남매 태권도 수련-

오늘날 교육의 형태는 오직 학교성적 및 입시 등, 밤 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서 소위 현대병인 당뇨, 비만증세, 그리고 각종 심장질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진다.

광주 도심지에서 약간 벗어난 광산구 월곡동의 신흥 주택지에 위치한 동신체육관에는 요즘 어린이들의 발길이 갈수록 열기를 더하고 있다. 협회활동에도 무척 열심히지만, 한 지역의 생활체육도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재욱관장은 오늘도 관원들을 지도하기에 여념이 없다.

현대 생활은 핵가족시대에 걸맞게 한가정에 1~2명의 자녀만 두는 것이 보편화 되었지만, 6남매는 많은 편에 속한다.

한 가족 6남매가 이 체육관에서 수련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김영진(광산여고 2년, 큰딸), 영숙(광산중 3년), 영오(광산중 1년), 효진(하남동국 6

년), 경진(하남동국 4년) 등 5명의 딸과 막내이자 아들인 성률(하남동국 2년).

이들 6남매가 태권도를 배우게 된 계기는 남다른 사정이 있었다.

지난 85년 막내인 성률이 태어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딸만 다섯이었던 이들의 부모는 아들을 위해 결국 소원이었던 아들 성률을 낳았지만, 하룻만에 부친 김원규씨는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였다.

당시 파고다빵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김원규씨는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그 불을 끄기 위해 들어갔다가 중화상을 입고 아들의 웃음도 보지 못한채 결국 순직하고 말았다.

그동안 눈물로 걱정의 세월을 보냈던 부인 한 순임씨는 그 과정속에서도 6남매를 키우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정성으로 인하여 어린남매들도 건강하고 소박하게 아름다운 꿈을 간직하면서 성장해 주었다.

“조그만 가슴속에 담겨진 꿈을 소울솔 풀어서 곱게 그려라/ 하연색 도화지에 꽃을 그리고



▲막내 성률이의 멋진 내려차기



▲6남매가 모두 태권도를 배우고 있다.



▲막내 성품이와 누나 경진이의 발차기 연습 모습.

나비찾아 오거든 곱게 웃어라 /  
해말간 눈망울에 찰랑찰랑 넘치  
는 / 그렇게 예쁜웃음 간직했다  
가 / 햇살뒤에 무지개 곱게곱게  
피는 날 / 푸른 하늘 바라보며 활  
짝 웃어라.”

노랫말처럼 6남매들의 꿈도  
아름답고 다양했다. 장래 과학  
자가 되고 싶다는 막내 성품, 국  
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욱  
심많은 꼬마 소녀 효진, 여자장

alui이 되어 민생치안에 한몫을  
담당하고 싶어하는 영오, 학자  
타일의 영숙, 미술과 지망생인  
큰딸 영진.

모두 이루고 싶은 꿈은 다르  
지만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원대로, 그리고 고생하시는  
어머니께 보답하기 위해 아름답  
게 자랄것을 다짐한다. 이들은  
강인한 정신과 인내심, 자신감  
등을 기르기 위해, 또한 갈수록

협약해지는 이 세대를 극복하기  
위해 큰딸 영진과 둘째인 영숙  
이가 먼저 태권도장을 찾았다.  
고등학교와 중3년에 재학중인  
관계로 요즘은 방학과 휴일을  
이용하여 수련하기 때문에 아직  
승단은 못했지만 시간나는대로  
호신술로서의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고 싶어한다.

남은 4명의 동생들은 지난 8  
월 승품·단 심사에 응심하여  
모두 합격, 자랑스런 품띠를 두  
르게 되었다.

심사장까지 함께 온 모친 한  
순임씨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나들  
틈속에서 자라온 성품이를 강하  
게 키우고 싶어 태권도를 배우  
게 하려 했는데, 큰애와 둘째가  
성장하면서 먼저 체육관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자들도 호  
신술로 태권도를 수련하는것이  
좋을것같아 먼저 배우게 했는데  
남은 동생들도 모두 배우고 싶  
어해서 함께 다니게 했습니다.  
오직 자식들이 순수하고 건강하  
게 자라주는것이 소박한 꿈입니  
다.”

어머니이자 가장으로 생활을  
꾸려가는 한씨는 홀로계신 시어  
머니 황금순씨(71세)를 모시고  
근교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시간  
있는대로 마을 부회장을 맡아  
열심히로 해내는 억척스러운 일  
면을 보여주고 있다.

활짝 웃는 6남매의 눈망울속  
에서 꿈나무로서의 기대가 물씬  
풍겨난다. **이민주**

〈광주 이병도 편집위원〉

전북 전주 금평국민학교

#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학교의 명예 높이는 태권도부



양용철 교장

1982년 9월 1일 개교한 금평 국민학교는 “부지런히 공부하고 튼튼하게 자라며 정직하게 살자” 라는 학교 생활목표 아래 그리 길지 않은 학교 역사 속에서 88올림픽으로 한창일때 비공식적이거나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해 왔다. 태권도부를 지도하는 강동화코치(전주동아체육관장)는 인천체육대학을 졸업후 10여년간을 전주 동아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태권도 선수 육성에 적극적으로 열성을 보여 왔다.

태권도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양용철 교장은 올해말 정식 태권도부를 창단하여 태권도 발전의 전기를 맞이하고 뜻이 있고 적극적인 태권도 수련생은 누구나 참여하여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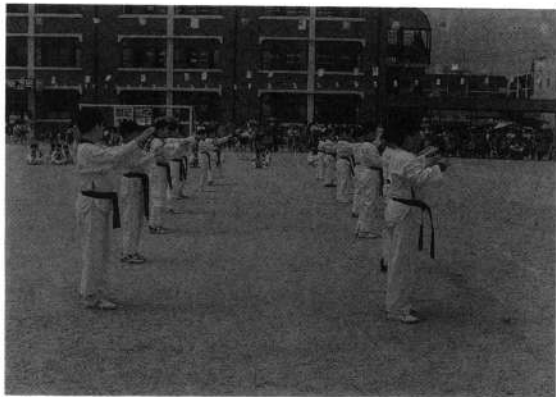
그동안 태권도부 어린이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학교의 명예를 빛내주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 문승현 교감선생님도 태권도부 학생들이 생활면에서 성실하고,



한영환 감독



강동화 코치(전주동아체육관장)



▲ 운동회때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는 태권도부



▲ 도지사배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금평국민학교

예의가 바르며 학업성적도 우수하다고 자랑했다.

한영환 감독선생님은 대회 출전 및 합숙훈련때 예산이 부족

하여 학교에서 적극지원하지 못하는 것과 태권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선입견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한

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생들이 명량하고 밝은 성격, 예의범절이 바르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이며 활동적이고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한편 금평국민학교는 태권도부 창단식을 정식으로 갖은후 태권도부 육성과 함께 1994년부터는 전교생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다.

금평국민학교 태권도부는 그리 길지 않은 역사속에서 올해는 값진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 93년 4월 22일

전북 교육감배 대회에 11명 참가. 금3, 은3, 동3, 단체종합 우승

• 93년 5월 13일

전라북도 소년체육대회에 국교부 전주시 대표로 출전 1위 3명, 2위 1명.

• 93년 9월 18일

제5회 도지사배 대회에서도 국교부 종합 우승.

• 93년 11월 2일

제30회 회장기 대회에서는 금3, 은1, 동1개로 종합 준우승

태권도부원은 거의가 학업 성적이 상위권이며, 태권도부 주장인 강정우선수는 전라북도 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두번이나 받아 금평국민학교 태권도부의 진가를 보여 주고 있다. **태권**

(전북 정철 편집위원)

전남 여수고등학교

# 태권도 명문고교로 부상하는 여수고등학교



**중**무공의 일이 서린 장대체 육관 훈련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는 여수고등학교 태권도부. 1988년 창단, 5년째를 맞이하여 드높은 함성과 함께 전국최강을 목표로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86%로 인문계 전국 명문고교인 여수고등학교는 여수지역 국민학교와 여수중학교의 우수선수로 연계되는 체계적인 선수관리로 태권도부 창단 이후 각종 대회에서 빛나는 성과를 올림으로써 태권도 명문고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여수고 출신인 박상곤(5회졸업) 교장의 취임이래 30명 수용의 현대식 합숙소를 완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태권도부 지도로 선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또한 총동문회 조성욱(동인의원장) 회장을 비롯한 동문회에서 연간 1,200만원의 선수 육성기금을 후원하여 전국최강팀으로 부상하도록 적극지원하고 있으며, 전남 태권도협회(전무이사 박창웅) 및 여수 태권도협회(회장 임기남)에서는 태권도 경기용 매트, 웨이트기구, 훈련용기구를 지원하여 여수고등



▲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승을 차지한 태권도부(위는 박상곤 교장)

학교 태권도부가 '91년 경희대 총장기 단체우승, '93년 대통령기 1위(미들급 빙원철) 제74회 전국체육대회 1위(라이트급 김은철) 등을 하는데 기여 하였으며, '93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93년 졸업생인 조진호(한체대1)가 우승하는 등 그동안 각종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렸으며, 특히 올해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김은철(3학년)이 금, 강은수(3학년)가 동, 빙원철(3학년)이 동메달을 차지하여 전남태권도의 저력과 여수

고등학교의 실력을 전국에 과시하였다.

또한 94년 신입생중 키 188, 체중 80의 우수한 신장과 체력을 갖춘 김도일(승주서면중)의 7명을 스카우트하여 더욱 전망이 밝다.

신우식 감독과 박은석 코치, 태권도부원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94년도에는 고교 태권도 최강팀이 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특보**

〈전남 한현영 편집위원〉

# 송년 인사, 신년 인사



태권도는 수련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인간다운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무도이다.  
우리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우리말을 바르고 아름답게 씀으로써 예의바른 태권도 가족이  
되어야겠다.

게재된 원고는 조선일보사 출판국에서 발행한 『우리말의 예절』에서 발췌한 것임을 밝혀둔다.

〈편집자 주〉

## 연말(年末)엔 '묵은 세배'

한 해를 보내면서 인사를 드려야 할 웃어른들도 많고, 망년회다 송년회다 해서 찾아야 할 모임도 많다. 송년 인사를 담은 연하장도 써야 하고 인사를 드려야 할 일도 많은 지금이야말로 일년 중 언어 예절이 가장 중시되는 때이다.

우리의 전통 예절에 따르면 송년 인사는 동짓날부터 설날 그믐때까지 며칠에 걸쳐 주고 받는다. 송년 인사는 묵은 해를 보내면서 하는 인사이므로 '묵은 인사'라고 불렀는데 요즘처럼 인사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을 하기도 했다.

특히 송년 인사는 각 개인의 구체적인 처지에 맞게 말을 만드는 것이 좋다. 액운을 당한 사람에

게 송년 인사를 할 때는 위로의 말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올해 병을 앓은 사람에게는 “액운이 다 때워졌으니 내년에는 쾌차할 것”이라는 식으로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원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송년 인사로는 역시 크리스마스 카드보다는 연하장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전통 예절에 어울린다.

송년 인사는 정형화된 말이 없음이 특징이다. 상대방에 대한 감사의 뜻과 한 해 동안의 수고에 대한 치하의 뜻을 포함하면 된다. 그 밖에 상대방에게 한 해 동안 있었던 기쁜 일과 슬픈 일에 대해 기쁨과 위로의 말을 하는 것도 좋다.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는 송년 인사의 좋은 예이다. 송년 인사말에서 고맙다는 표시로 ‘여러 가지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와 같이 ‘감사합니다.’라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는데 ‘고맙습니다.’가 더 좋은 말이다.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옳은 말로 알고 ‘고맙습니다.’는 말을 오히려 젊은이들이 어른에게 쓰기에는 건방진 말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감사합니다.’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고유어를 살려 쓰는 것이 좋다. 더욱이 ‘감사드린다.’는 말은 글 쓸 경우가 아니라면 좋지 않다. 굳이 ‘고맙다.’ 대신에 쓰고자 한다면 ‘감사하다.’로 족하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나 ‘한 해 동안 수고했네.’와 같은 말로 송년 인사를 할 수 있는데, 수고하다는 말은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 고윗사람에게는 써서는 안 된다. 가령 하직하면서 윗사람에게 ‘수고하십시오’도 옳지 않은 말이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묵은 세배’가 있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또는 특별히 은고를 입은 어른을 그름께 찾아뵙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준 은혜에 고마움을 표했던 것이다. 묵은 세배는 그냥 절만 하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신구세(新舊歲)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하기도 했으며 묵은 세배를 하고 새해에도 물론 세배를 갔다.

오늘날에는 정초에 일이 있어 가 뵙지 못할 경우에 연말에 찾아 뵙고 송년 인사와 신년 인사를 겸해서 세배를 할 수 있겠다. 어른 댁을 방문해서는 처음에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대화를 마치고 떠날 때 정식으로 절을 한다. 이 때 말없이 절만 하면된다. 세배에는 원칙적으로 말이 필요 없는 것이다.

요즘에는 연말에 직장 동료나 친구를 만나 헤어질 때, 올해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면 인사를 하는 일도 있다. 정초에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는 물론 정초에 다시 만날 사람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미리 새해 인사를 한다. 새로운 묵은 세배라 할 인사로서 예에 어긋나지 않는 자연스런 일이다.

## 신년 인사 ‘세배’

신년 인사의 정형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는 직장, 학교, 이웃 등 모든 경우에서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신년 인사의 정형으로 굳어졌다. 물론 대화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집안에서 친척, 친지에 대한 신년 인사는 세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게 된다. 요사이 젊은 층에서는 세배를 할 때 절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어른에게 으레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하는 버릇이 있다. 이런 명령조의 말을 하는 것은 어른에 대한 예가 아니며 절 받는 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말 없이 그냥 절을 하는 것이 공손하다. 다만 나이가 차가 크지 않은 어른이 절 받기를 사양할 때 권하는 의미로 ‘절 받으세요’나 ‘앉으세요’라고 말할 것은 괜찮다.

세배는 원칙적으로 절하는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같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그냥 절만 하면 그걸로 인사를 한 것이며 어른의 덕담이 있기를 기다리면 된다.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덕담은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가 정형이라 할 만하다. 이 밖에 상대방의 처지에 맞는 덕담을 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장가 안간 총각에게 장가가기를 빌어주는 덕담으로 '자네 올해 장가 들었다지' 하고 이미 이루어진 일인 것처럼 말했다지만 오늘날에도 이를 표준으로 삼기는 어렵고 '자네 올해는 장가 가야지' 정도로 덕담을 하는 것이 좋다.

절을 한 뒤 어른의 덕담이 곧 이어 나오지 않을 때나 덕담이 있는 뒤에 어른께 따로 인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과세 안녕하십니까?' 정도가 좋고, 이 밖에 상대방의 처지에 맞게, 이를테면 '올해는 두루두루 여행 많이 다니세요'나 '올해는 테니스 많이 치세요.'와 같은 기원을 담은 인사말을 할 수 있다. 요즘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윗사람에게 건강을 비는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이 때 듣는 이의 기분을 해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건강을 비는 말이 오히려 듣는 이에게 '내가 벌써 건강을 걱정해야 할 만큼 늙었나?'하는 느낌을 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수무강하십시오'나 '오래오래 사세요' 같은 인사말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어른에게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말이므로 안 쓰는 것이 좋다.

신년 세배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지간에도 서로 행해야 한다.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평절로 맞절을 하는데 남편이

"새해에 건강하세요"라면, 부인은 "당신께서도 소원성취하세요"라고 화답한다. 특히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이처럼 신년 인사를 나누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이들에게 절을 받을 경우 요즘에는 한꺼번에 세배를 받지만 원래는 나이 순서대로 절을 시켜야 한다. 이는 동기간에 차서를 지키는 절서 정신과 형제 자매간에 공경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전통 예절에서는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맞절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 중손인 조카엔 맞절해

한편 나이와 촌수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숙부보다 조카가 더 나이가 많으면 세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전통 예절에 따르면 이럴 경우 숙부보다 나이 위인 조카가 절하면 나이 아래의 숙부는 절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반절을 해야 한다. 조카가 절하는 손이 방바닥에 닿을 무렵 앉은 자세에서 같이 절하는 것. 단 조카가 종가의 중손인 경우 나이가 위인 숙부는 종가를 받든다는 뜻에서 맞절로 예우해야 한다.

새해가 되면 아랫사람이 많은 어른은 덕담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아랫사람들이 새해를 보낼 지침을 한두 개 정도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본문**





창 밖엔  
눈이 쌓이고  
우리들 마음엔  
새 이야기가  
쌓이고

눈이 내리는 겨울, 눈꽃이 피는 창밖을 보며 어떤 책을 읽을까?

정두리 선생님이 쓰신 동시집 <우리 동네 이야기>를 먼저 소개한다.

짧은 시를 통해 우리 어린이들의 삶을 노래해온 정두리 선생님의 새 동시집은 외어두고 싶은 아름다운 시로 가득 차있다.

개살구, 생강, 달방무 김치, 수박, 통닭구이, 떡볶이, 리모콘 .....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정두리 선생님의 마음을 통해 이런 것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

정두리 선생님의 이번 시들은 마치 동화를, 아주 짧은 동화를 읽는 것처럼 쉬우면서도 큰 뜻을 담고 있다. 우리들이 아무 생각없이 훑어거리는 노래 한 마디를 가지고도 선생님은 시를 써낸다.

어쩐, 우리가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쌀쌀한 노래가 있다니.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누가 노랫말을 붙이고 만들었을까?

누가 이 노래를 내림으로 물려주었을까?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따라 부르기만 했었지.

이젠 다른 말로 바꾸면 어때?

우리 집에 놀러 와.

놀러 와, 놀러 와, 친구야!

<우리 집에 왜 왔니? 전문>

이 겨울에 이 시집을 꼭 구해 읽어보자. 엄마, 아빠와 소리를 맞추어 낭독해도 좋을 것이다.

정두리 지음 <우리 동네 이야기> · 대교출판



날마다 새로운 책이 수없이 쏟아진다. 그러나 예전에 나온 책들이 새 책보다 더 사랑받는 경우도 많다.

이금이 선생님이 지은 <영구랑 흑구랑>도 예전에 나온 동화집이지만 꾸준히 사랑받는 동화집이다.

이 동화집에는 시골아이들이 많이 나온다. 시골 아이들은 자기와 비슷한 아이들이 나오는 이야기여서 재미있을 것이고 도시 아이들은 자기가 잘 모르는 새로운 이야기여서 재미있을 것이다.

은행 나무의 푸른 잎을 약품 재료로 사가려는 사람과, 그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반대하는 할아버지 이야기, 자기가 기르던 염소 흑구를 약용으로 차마 팔지 못하고 우는 영구. 오랜 가뭄, 논물 때문에 원수가 되어 버리는 어른들과는 달리 서로 물꼬를 터 주는 아이들의 우정 등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야기 18편이 실려있다.

**✿이금이 지음 <영구랑 흑구랑> · 현암사**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자라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면 어떨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그렇다면?

미국의 유명한 아동문학가이며 삽화가인 나탈리 배버트의 장편 동화 <트리갯의 샘물>이 우리나라에도 번역 출판되어 사랑받고 있다.

터크네 가족은 모두 성장을 멈추어 버린 사람들이다. 우연한 기회에 이상한 샘물을 마시고 그렇게 되어 버린 것이다.

실제 나이는 백네 살이지만 열일곱 살로 영원히 살아가는 제시. 그리고 그의 아버지 터크, 제시의 엄마 매.

제시는 나름대로 삶을 즐기지만 아빠인 터크는 아주 힘들어 한다. 비록 늙지는 않지만 변화가 없는 삶이란, 삶이 아니라 길가의 돌맹이나 마찬가지로 지라는 거다.

다시 늙고 싶어하는 아빠 터크. 그는 생명을 내어 놓더라도 다시 늙고 싶어 한다.

그러나 엄마의 태도는 또 다르다. 자기에게 주어졌던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하루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려 한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도 호기심이 생기는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그 이상한 샘물을 이용하여 돈을 벌여 보려는 노란 옷의 남자.

이 <트리갯의 샘물>은 1975년에 발표되었는데 미국의 국민학교 어린이 뿐만 아니라 중학생까지 꼭 읽는 필독서가 되었다고 한다.

**✿나탈리 배버트 지음 <트리갯의 샘물> · 대교출판**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방학이 있어서 더욱 좋다.

추운 겨울 동안 민물에 사는 물고기들은 어떻게 지낼까?

<민물고기 박사> 최기철 선생님이 지은 <민물고기 이야기>는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 읽어야 할 좋은 책이다.

우리가 여름철 민물에서 수없이 만나고 그 물고기들. 그 물고기들의 이름을 여러분은 얼마나 아는가? 이 책에는 우리나라 민물고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다.

송사리가 뒷세를 부리는 이야기, 효자 고기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은문어 이야기, 이름을 193개나 가지고 있는 쉬리란 물고기 이야기, 하루 살이의 애크레가 우글거리는 민물은 깨끗한 1급수로 마셔도 되고 탁한 물인 3급수에서도 붕어, 잉어, 메기는 잘 자란다는 이야기 등 아주 흥미롭고 신기한 이야기로 꼭 차있는 <민물고기 이야기>를 이번 겨울에 꼭 읽어보자. **한길사**

**✿최기철 지음 <민물고기 이야기> · 한길사**

## 개화 시대를 향한 우주론적 사랑의 교범

—이광수의 『사랑』—

춘원 이광수는 그의 삶과 문필 양면에 걸쳐 우리 근대사에 지울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였고, 그를 대상으로 한 논의는 탄생 1백 주년을 넘기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부피로 집적되어 왔다. 근대문학의 초입을 화려하게 장식한 광영이 그의 문인가 하면, 일제의 지배 체제에 영합한 휘질이 강고한 명예로 그를 얼어매고 있기도 하다.

신소설로부터 근대소설로 넘어오는 관문이 된 《무정》을 시발로 하여, 그의 작품들은 문학을 통한 현실의 개량이라는 시대사적 명제의 저변을 다졌고 시제 및 대명사의 활용과 같은 표현방법이나 근대적 문체의 확립 등 문학기법의 진보에 있어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요컨대 개화기 세대의 계몽 사상가로서 민족의식을 주창하고 숙명론에 물든 인생관의 탈피와 자유 연애주의의 신장을 계도하는 한편, 선과 악의 이분법적 구분과 관념편향의 오랜 관습을 타파한 창작 정신의 주체로서만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다면,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를 최상급의 수식어로 치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에서 흔하게 목도할 수 있는 성격·구성상의 일관성 결여라든지 치명적인 단서로 비판되는 역사 의식의 실종 및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의 혼동 등속의 항목도, 당대 문학에 미친 광범위한 교화력이나 감응력을 덮개로 하여 가려두는 데 보다 관대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관용의 평점을 허락하는 일을 완강하게 가로막는 걸림돌은 언제나 그의 근시안적 오판에 의거한 친일 행각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광수의 작품들은 작품 자체로서의 생명력보다는 창작 환경과 결부되어 그 효용성이 감정되는 상황을 야기하게 되었고, 이는 다분히 감정적인 요소가 작품의 해명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측면과 당대에 그가 점유한 지도적인 위치로 보아 작품이 작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수긍할 만한 측면을 거절못처럼 동시에 끌어안게 된 셈이다.

예술가와 인격자를 동일한 수준으로 치환될 수 있는 절목으로 간주하고 삶의 한 방면으로 문학을 가늠하며 문학을 가늠하며 문학 속에서 삶의 방향성을 탐색해 온 그의 모든 작품들처럼, 첫 전작 장편《사랑》 역시 소설적 발화법을 통해 차원 높은 정신적 경지를 추구하려는 도덕적 교화론의 소산임이 분명하다. 《무정》이나 《흙》과 같은 작품이 그러하듯이 그것을 위한 담화 구조를 이끌어 나가는 이는 궁극적으로 중심 인물의 동위에서 서 있는 전지적 작가며, 따라서 《사랑》의 교술자 안빈은 작가 자신의 이상이 투여된 작중의 대역자에 해당된다.

《사랑》은 1938년 8월에 상권이 탈고되고 김동인이 이광수에게 자살을 권고하려 갔던 10월에 간행되었으며, 이듬해 4월에 하편이 탈고되었다. 상·하편으로 나눈 단계의 구분과 각 편의 목차를 나눈 감각만해도 그 이전의 다른 작가들이 모방할 수 없는 질적 변별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이 소설을 움직이는 주된 동력은 의사 안빈과 그를 지순한 감정으로 사랑하는 간호원 석순옥에 부하되어 있다.

우리는 이 소설 전반을 통하여 단 한 구절이라도 안빈이 석순옥에게 감성적인 사랑의 말을 토로하는 장면을 볼 수 없다. 그것은 이 소설이 여러 가지 극적인 사건의 굴곡들을 배치하고 있으며, 그 행간을 채우는 핵심에 있어서는 도덕적 사랑론을 표방하는 근엄한 성자의 얼굴을 조금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에 안빈은 석순옥의 동료 박인원을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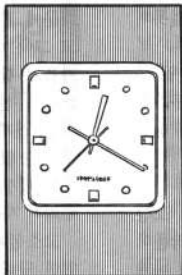
석순옥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천지가 여러 억만 번 부서져도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으로 여러 남편과 살다가 죽은 다음 부활한 뒤에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신약성서의 문답법을 인용한다. 사람보다 이상 경계에 가면 벌써 남성이니 여성이니 하는 구분이 없어져 버린다는 안빈의 강론은, 이미 범속한 세상사의 저변을 초탈하여 육탈이 끝난 이상주의적 사랑론으로 진입해 있다.

고소설이나 신소설의 전통적 서술방식에 젖어 있던 당대의 문학적 감각으로는 이광수가 개간하고 있는 미지의 세계와 그 도구로서의 대사 및 묘사의 방법 등속이 가히 획기적이고 폭발적인 감동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이를 축약하여 우리 문학의 근대성을 개척한 공로로 일컫는 것이며, 비록 오늘날의 세련된 시각으로 검증할 때 삼류 통속소설의 외양이 약여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확정된 성과로 인하여 이광수와 그의 문학을 우리 문학사의 소중한 한 징검다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이 근대의식의 개화기에 이광수가 그의 문학을 통하여, 그리고 이 소설의 자서에서 경구처럼 제기하는 바 끝없이 높은 사랑을 찾아 향상해야 한다는 사회 개량의 사명감을 통하여, 우리 역사와 민족을 향해 내던진 욕성에는 한 시대의 중심을 울리는 통렬함이 있다. 그러하기에 그의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의 행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그를 아무런 유보 조건없이 폄하할 수 없으며, 그의 탄생 1백 주년을 맞아 그가 남긴 대표적인 작품들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일이 요구되는 것이다. **태권**

# 태권가죽

이향원





## 93년을 보내며

한규인 / 전 대한태권도협회 홍보실장

태권도협회를 떠난지 5년. 근무했었던 8년을 회상하며, 태권도지에 기고코저 筆을 드니 감회가 새롭다.

당시 태권도지 편집을 하며, 현장감있게 책을 만들겠다는 미명하에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전국 시도협회를 5~6회 방문하면서 일선에서 태권도보급에 앞장서는 훌륭한 사범님들을 많이 만났었다(지금도 감사를 드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8년여를 협회에 근무하면서 말은 직분에서 크게 변화시킨 것도 없이 퇴직을 하게되어 내심 송구스러웠다.

1993년은 우리나라 헌정사상 큰 획을 그을만큼 의미가 큰 한 해였다.


30여년의 군정(軍政)을 마감하고 문민정부가 탄생되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신한국

창조를 "모토"로 개혁의 바람이 도처에 세차게 불었고, 개혁의 주역인 김영삼 대통령의 인기는 전무후무하게 90%를 상회하는 신기무를 낳았다. 국민들은 개혁에 찬사를 보냈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정·관·재계(政·官·財界)의 수구세력들은 눈치보며 보신하기에 여념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

사회각계에서는 「자! 이제는 모든것이 새로워져야 한다」고 외치며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태권도계는 얼마나 새로워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老子는 공수신티 천지도(功遂身退 天之道)를 설파하였다. 공을 세운다음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이야기이다. 또한老子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고 했다. 물은 만물에게 이택(利澤)을 준다. 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세계연맹, 협회, 국기원,  
 시도지부 등도 자기점검을 하여서  
 변화하는 세상에 발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물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공명을 다루는 일이 없다.

인간은 일보라도 높은 위치를 원하나 물은 그 반대로 낮은 곳에 있을수록 커지는 무한한 포용력이 있다. 계곡을 흘러내려 강을 이루고, 강이 다시 흘러 바다라는 무한한 존재가 된다.老子는 못 중생들에게 이러한 물의 섭리를 닮은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였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 물은 반드시 흘러야 한다고 했다. 우리 태권도의 주변을 살펴보자.

고여있는 물은 없는가? 움직이지 않는 고여있는 물에는 산소부족으로 물고기가 살 수 없으며, 물이 썩으면 인간에게 해로운 모기나 파리를 양산하며, 풍기는 악취로 신성한 인간의 접근이 어렵게 된다. 우리 태권도인은 스스로 자기혁신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세계연맹, 협회, 국기원, 시도지부 등도 자기점검을 하여서 변화하는 세상에 발 맞추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태권도는 선후배가 분명 한 무도계(武道界) 인지라 상명하달(上命下達)의 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좋은 의견들이 반영되어서 사리를 분명히 하는 태권도인의 집단이 되도록 각자 자아혁신(自我革新)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만 20세면 어른으로 인정되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그러나 태권도계는 35~45세의 장년들도 애들 취급을 당한다. 30~40대의 장년시절에 태권도계를 좌지우지하던 선배님들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자리에서 견제하셔서인가?

태권도지 가을호에서 스포츠서울의 김덕기 기자가 지적했듯이 세계 130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태권도가 외국에서 받는 접대의 절반만이라도 국내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태권도인의 공통된 견해라고 지적했고, "안에서 새는 쪽박은 밖에서도 샌다."는 속담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태권도라고 지적한

점을 우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겠다.

역사에는 인물이 빠질수 없다. 대한태권도협회 창설이후의 역사와 인물들을 돌이켜 보면서 바람직한 개혁의 물결에 태권도도 동참하도록 태권도인 모두가 자아혁신에 게으름이 없어야 하겠다.

필자가 15년전 국민학교태권도연맹에 임원으로 참여할때 태권도대회에 품새, 시범 등을 대회종목에 삼입하여 경기를 치를때 겨루기외에 다른 종목을 넣는 것은 안된다고 야단을 치던 선배, 동료들이 많았었다. 이제 중암협회에서 태권도 한마당을 두번째로 개최하고 있지 않은가?

유급자 품새 8가지 유단자 품새 9가지 등 17개의 품새로 어린이, 청년, 어른이 모두 같이 30여년을 변화없이 수련하고 있음도 문제이다. 이제 태권도 한마당과 같은 대회가 더 발전하여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둘 풀어감으로써 생활체육으로 태권도가 뿌리내리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다.

봄은 여름에게, 여름은 가을에게, 가을은 겨울에게 자리를 양보하듯 태권도계도 유아독존격의 상황을 벗어날 필요를 절감하며, 흐르는 물이 썩지 않는 이유를 태권도인들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93년을 보낸다. **태권**



# 중국에 태권도 시범보이며



윤 선 기/서울시 태권도 협회 강동구  
대의원 · 고덕체육관 관장

서울지하철공사 태권도부와 중국 여행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 중국 여행,  
해가 바뀌고 시대 흐름에 따라 세계 정세도 너  
무나도 놀랍도록 변해가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  
체제인 중국도 서서히 자본주의 국가와 접근하는  
시각에 때 맞추어 국기 태권도를 보급코저 지하철  
시범 선수단 일행과 함께 난생 처음으로 해외의 나  
들이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영광을 갖게 되었다.  
우리 시범단 일행은 93년 7월5일 김포 공항을  
출국하여 약 4시간 동안 비행하여 홍콩에 도착했  
다.

말로만 들던 홍콩, 노래에서 들던 홍콩에 발을  
디디고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버스로 갈아타니  
무엇보다도 이상한 것은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였다.

시범단은 홍콩 태권도 협회 임원들의 영접을 받  
고 한국 식당에서 점심을 마친뒤 선박편으로 주해  
를 향해 출발했다.

나는 배에 올라 선실 밖으로 나왔다. 정말 기분  
이 상쾌했다. 뒷 배경에는 홍콩의 그림 같은 빌딩  
들이 장관이었고, 바닷물을 가로 지르며 달리는  
바닷 바람이 시원했다.

## 붉은 바닷물이 흐르는 주해

약 두어 시간이 걸렸다고 생각 되었을 때 바닷  
물이 붉었다. 마치 우리나라 여름 장마가 왔을 때

의 흙탕물 처럼 빨갛았다. 누가 『이제 주해 다 왔  
다』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얼마 안가서 선착장이  
보이기 시작했다. 바닷물이 흙탕물처럼 붉은것은  
주해땅이 황토 흙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해 선  
착장에 도착하여 보니 주해시민들의 모습은 옛날  
6·25사변시 내가 어릴때 본 인민군 복장 그대로  
였다. 우리 일행은 엄격한 점검을 마친 후 선착장  
을 빠져 나와 안내자에 의해 버스에 탑승했다. 머  
리가 아플 정도로 버스가 덜렁 거리며 흔들 거렸  
다. 우리 나라 같으면 폐차 시기가 된 차 같았다.  
건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 건물처럼 신형 건물들  
이 보였다. 멋지게 생긴 신형 큰 건물앞에 차가  
멈추었다. 그런데 珠海村 酒店이라고 크게 간판이  
쓰여 무슨 술집이 이렇게 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호텔을 중국에서는 酒店이라고 한다.  
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시범단의 숙소로  
향했는데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층으로 건축된 스  
페인식 호텔이였다. 마치 우리나라의 호화별장 같  
았다. 이 호텔의 단 한가지 흠은 식수문제였다.  
뜨거운 여름철인데도 커피포트 같은 용기를 벽에  
스위치를 잡고 24시간 끓여 먹도록 돼 있었다. 난  
모르고 수도꼭지를 틀고 시원한 냉수 한 컵을 마  
셨다. 다행히 아무 탈이 없었다. 또 한가지 우리  
나라처럼 식품 상회나 구멍 가게들이 호텔 주변에  
없어서 급할때 사다 먹을 수 없는 것이 불편했다.  
우리 일행이 들어있는 호텔은 귀빈들에게 제공하



는 숙소라고 했다.

### 주해시 체육관에서 태권도 시범

낮에는 근무하고 생업에 종사하므로 저녁 시간 이라야 모든 행사 조건이 좋기 때문에 태권도 시범을 오후 밤 시간에 주해시 체육관에서 시범을 하게 되었다.

예정된 시간에 주해시 체육 회장의 안내를 받아 시범 장소에 도착해 시체육관을 둘러 보았다. 그리 깨끗 하지도, 시설도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체육회장은 말했다. 이곳에서 중국의 탁구 국가대표 선수며, 탁구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배출된 곳이라고 자랑과 긍지를 갖고 체육관을 소개했다. 잠시 접대실로 들어가서 음료를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는 당구를 치는 노인들이 있었다. 나이는 75세 이상이라고 했다. 우리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당구를 즐기는 것과는 대조적이었기에 이색적인 느낌이 들었다. 바로 이어서 시범이 시작되고, 엄운규 회장의 인사 말씀이 있었다. 마카오 경찰 사범으로 있는 이동섭 사범이 통

역을 했다.

시범중에 재미있는 기억은 회전공중 삼백육십도 돌려 차기로 과일을 격파하는데, 머리위에 올려놓은 그나라 과일이 단단해서 깨지지 않아 제2차 시범을 시도하여 결국 깨지는데, 그때 누군가 (중국방송국) 무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다가 그 사람 얼굴에 과일 조각이 맞는 바람에 뒤로 자빠지고 놀라 황급히 달아 나는 것을 보고 관중들이 우와! 하는 함성의 소리와 함께 환호의 박수와 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성황리에 시범을 마치고 주해시 체육회장과 당부서기장의 초대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부”자 붙은 사람이 실력자로 알려져 있다. 모든 결재권은 부서기장처럼 “부”자 붙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와 다른 의식주문화

어느 민족이던간에 식사 시간처럼 즐거운 시간은 없는 것 같다. 특히 중국 사람에게서는 더욱 강하게 느끼게 된다. 간단히 식사 한다는 것이 보

통 삼십여 가지 음식종류가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에 식탁에 차리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씩 식탁에 올려 놓으면 식탁이 돌아 가게 되어 있어, 각자 자기 앞으로 돌려 가면서 다 먹으면 차례로 음식이 나오는 것이다.

여러 사람이 고루고루 먹으며 음식이 남지 않으니 낭비성이 없으며 영양가도 골고루 섭취하게 되니 그들의 식사 방법이 합리적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들은 식사 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이곳에 오기전에 기름진 음식을 어떻게 먹고 지낼 수 있을까 하고 매우 걱정 되었지만, 처음 중국 음식을 대하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준비돼 나왔다. 말로는 최고급 요리라고 했다. 아주 오래전에 대만에 다녀오신 선배님 말씀이 기억났다. 처음부터 너무 빨리 많이 먹으면 나중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들은 대로 진국 음식이 늦게 많이 나왔다. 물론 술도 나오는데 적당히 음식을 먹었다고 느꼈을때 술이 나왔다.

식사 시간이 보통 3시간 정도로 긴 편이다. 그렇게 수십가지 음식을 먹으니 당연한 시간이라고 이해가 된다.

또한 느낀것은 우리나라 사람과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벌어서 가족과 함께 매끼 식사를 사먹는 것이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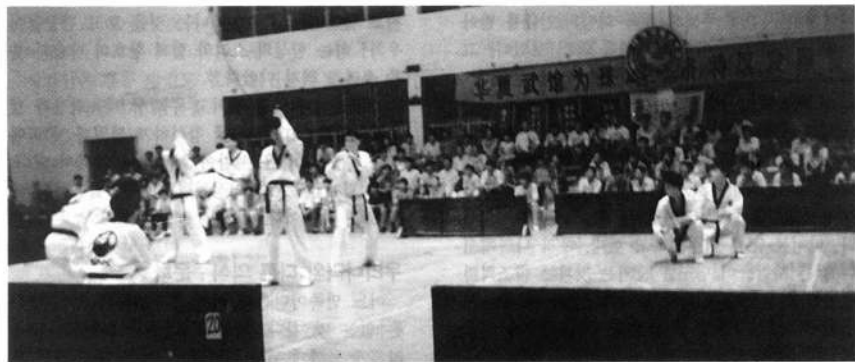


중국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었다. 나는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직업을 잘 선택 했구나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이곳에 올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니 감회가 깊었다. 이번의 중국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했으며 나아가서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훌륭히 해 내었다고 자부한다.



일년에 한두번 있고, 거의 매식한다고 한다. 물론 수입의 능력에 따라 매식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은 같은 것이라고 한다. 단 의복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다. 그렇다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아니다. 검소 하고 편한옷을 입고 귀빈도 만나고 누구나 자연스럽게 만나고 사는 것이 생활의 특성같아 보였다.

한편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옆에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날씨가 몹씨 더워서 철근 보다는 대나무를, 철사줄 대신 비닐끈을 사용하였다. 그렇다고 주해서 전체 건물이 대나무 건물은 아니며, 오래돼 보이는 건물의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것이 몹



시 흥해 보였다. 요즘 신축 건물들은 외벽에 타일이나 반사경 유리를 사용하는 현대식 건축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주해시의 일정을 마치고 심천으로 떠났다. 선박편으로 심천역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공안국 부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로우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점심 식사를 마친후 중국 민속문화촌을 관람하게 되었다.

1991년 10월에 대외 개방을 했다고 인쇄된 안내문에 기록돼 있었다.

중국의 땅 덩어리가 원래 크지만 문화촌의 광역(廣域)도 본시 커서, 만리장성을 비롯한 중요한 문화유적지를 안내자를 따라 열심히 뛰면서 보다 싶이 했다. 제한된 시간에 관람 하는 것이라 대충 보는식이었다. 그런데도 약 4시간이나 걸렸다. 기념 촬영도 해가며 안내자와 일행을 놓치지 않고 따라 다니려니가 마치 마라톤 연습이나 하는것 같이 힘들었다. 만리장성도 실제 손속물처럼 웅장하였고 그들의 황제폐하의 궁궐을 축소하여 수많은 군사들이 각가지 무기를 갖고 요소요소에 삼엄하게 경비하는 모습을 도자기로 만든 작품이며, 몽고족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과 집들, 절긴 천으로 둥그렇게 막사를 짓고 튼튼한 밧줄로 엮어 매어놓은 모습과 몽고인을 가장한 실물이라던가, 대자연의 형태를 이용한 각가지 오묘한 광경은 그야말로 신비롭게만 느껴질 뿐이었다.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기 어렵고 표현키 어려울뿐 그저 감탄사만 나왔다. 제한된 짧은 시간으로 모두 구경을 할수 없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 심천시 인민경찰학교에서의 태권도 시범

이튿날 아침 심천시 인민경찰학교에서 태권도 시범이 있었다. 경찰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주악대가 우리 일행을 환영했다.

체육관으로 가니 인민경찰이 본부석을 향해 “ㄴ”자형으로 정사세로 앉아 있었다. 우리 시범 선수들은 김영희 사범의 감독하에 실수없이 시범을 보여주어 극찬을 받았다. 이곳에서는 시범을 마치는 동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띄었

다. 한가지는 기념촬영을 하는데 맨 앞좌석을 위치하여 뒤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서는데 얼굴이 앞사람에 가려 사진이 나오거나 말거나 꼭꼭얹고 질서 정연히 줄을 서 있는 것과 체육관 입구에 두명의 경비병이 서 있는데, 시범 중에 기합소리와 격파를 깨지는 소리, 거루기 시범, 미트차기 시범 등 요란한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처음 그 자세로서 있는 것이었다. 목만 좌우로 돌리지만 하면 시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부동 자세로 끝날때까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공산주의 교육이 이처럼 무서운가. 정신 교육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야 될지 착잡한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체구나 얼굴 색깔이 우리 민족과 흡사하다. 그런데 다만, 아직도 사회주의 제도에 따른 사상과 생활모습, 언어가 다를 뿐이다. 역사적으로는 가장 우호적이었고 때론 침략을 통해 우리 민족을 괴롭혔던 중국. 그러나 세계는 너무나 변해가고 있다. 마르크스, 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을 깨트리고 민주화 해가는 러시아(구소련)의 뒤를 서서히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하며 받아들이려는 조심성 있는 중국. 짧은 일정이었지만 중국에 직접와서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순간 중국 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었다. 나는 태권도를 배워서 태권도장을 운영 하는 태권도지도자로서의 직업을 잘 선택 했구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이곳에 올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니 감회가 깊었다. 이번의 중국시범을 통해 태권도의 보급, 확산에 이바지했으며 나아가서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훌륭히 해 내었다고 자부한다.

끝으로 모든 행사 준비에 차질없이 애쓰신 서울시 협회 임직원과 이번 시범 대회에 다녀 오기까지 주관하시느라 고생한 홍콩 문태권도장을 운영하며 홍콩태권도협회 사무총장인 문명근관장, 후원해 주신 김용재 사장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시범 단장으로 애쓰셨던 서울 지하철공사 장영석 부장, 마카오 경찰서 지도사범 이동섭사범, 홍콩태권도협회 최동호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태권도**

# 태권도 수련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

허 맹 목/삼덕체육관 관장

## 목 차

1. 서 론
2. 유아기 태권도 교육
  - 가.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 나. 태권도 교육의 방향
3. 아동부 태권도 교육
  - 가. 태권도 수련의 가치성
  - 나. 태권도 수련의 효과
4. 결론 및 제언

\* 지면관계상 이론적 배경 부분을 생략 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 1. 서 론

인간은 지구상에 그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체육활동을 해 왔다. 특히 짐승들과 다른 종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종족의 보호를 위해 전투력이 필요하였고,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육체노동이 요구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신력과 체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에 인공을 가하여 문명이 발달하고, 첨단과학 문명을 구가하는 고도산업사회가 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과 리듬이 변

해가므로 인하여 인간의 신체활동이 점점 줄어들어 체력 감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자라나는 세대에도 영향을 끼쳐 운동량의 부족을 가져와 체력과 정신력이 점점 약화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국가적으로 국민 체위 향상을 도모하는 각종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과중한 체육 훈련은 오히려 체력이나 정신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실정에서 현대 아동들이 즐겨 배우는 태권도는 과연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배경으로 태권도 역사와 태권도의 특징 그리고 성장과 발달의 정의에 대하여 논하고 미취학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과 그 태권도 교육의 방향을 논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아동부 태권도 수련과 신체발달, 정신력, 사회성 발달에 관하여 태권도 수련이 아동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교육학적인 전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유아라 함은 유치원 또래를, 아동이라함은 국민학생을 지칭한다.

## 2. 유아기 태권도 교육

### 가.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1960년대부터 선진국가들은 20세기 전반기까지의 성인중심의 교육에서 유아 중심의 교육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발달단계에서 유아기가 다른 어떤 시기보다도 교육잠재력이 풍부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유아가 2천년대의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미국의 아동교육에 예찬하는 유아교육의 르네상스라고까지 말한다.

유아기는 인간을 결정짓는 시기이다. 세상 바뀔 이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된 후의 뉘림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며, 블룸의 주장에 의하면 지능이 4세까지 약 50%, 그 후 8세 사이 약 30%, 8세 이후 남은 20%가 발달한다고 하니, 발달이 가장 빠르고 무한히 발달할 수 있는 발달가능성이 풍부한 시기이다. 또 유아기는 신체적 발달이 왕성하고 체력, 운동능력, 건전한 건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습관 및 안전에 대한 사고의 기초가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들의 유치원, 어린이집, 새마을 유아원 등의 취원율이 지극히 낮은 형편이다. 이런 우리나라 현실에서 미취학 유아들에게 태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발달과 사회성 계발을 도와야 한다.

### 나. 태권도 교육의 방향

1980년대 초반 이래 태권도장에는 유아기의 수련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붐이나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 뿐만 아니라 탁아효과를 고려한 측면도 있다. 유아기 수련생의 특성상 전통무예의 전승보다는 유아의 체력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아는 신체적 발달이 왕성하고, 조화적 능력이 부족하며, 자기 중심적이다. 또 유아는 흥

미의 지속 시간이 짧고, 모방적이며, 보고 듣고 만져 보고 물어 보는 것이 많다. 유아들은 또 관찰능력이 부족하고 흥미가 분산되고, 주의력이 없으며, 동적인 것에 흥미를 느낀다. 뿐만 아니라 유아들은 크기, 모양, 수량, 방향, 자리, 속도 등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유아들의 특징에 유의하여 태권도의 전과정을 단순반복하여 가르치거나, 주입식 교육법을 지양하고,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살피며 교육하고, 또래 집단속에서의 어울림과 자기 성장, 자기발견을 하게 하고, 쉽고 가벼운 것부터 체조화한 동작이 되도록 체계를 세워 교육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태권도 교육 과정 운영보다는 그들을 중심으로 한 태권도 교육 과정의 개발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3. 아동부 태권도 교육

### 가. 태권도 수련의 가치성

양희중·이규형은 그들의 공동 연구 논문에서 아동 학부모 지도자가 모두 태권도 수련의 동기를 체력단련, 친구들과 건전하게 어울려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과 소질 개발, 자기 방어에 둔다고 하였다. 그들은 또 태권도를 수련하는 아동이나 학부모가 다 태권도에 관한 관심도가 높고, 태권도는 정신집중이 잘되기 때문에 수련 후 아동들의 학습의욕과 성적이 향상되었으며, 편식이 없어지고 신체발달에 도움이 되었고, 강한 정신력, 자신감, 인내력을 갖게 되었고, 자립심이 강하고 예절이 바르고 개인생활에서 용화가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 나. 태권도 수련의 효과

결국 양희중·이규형은 태권도 수련의 효과가 체력 향상, 건강 증진, 신체발달 및 정신력 배양, 사회성발달에 의미있다고 보고 있다. 태권도 수련이 체력 및 신장에 미치는 영향이 1978년 석관국민학교 교사인 주상일에 의해서도 이미 보고된 바 있다. 주상일은 서울 석관 국민학교 6학년 2개반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들

을 태권도반과 비태권도반으로 나누어 비교 실험하여 태권도반이 비태권도반에 비해 기초체력의 증가폭이 컸고, 신장의 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정찬성도 그의 연구를 통해 태권도 수련집단이 비수련집단보다 신장이 크고, 체중이 감소되는 이상적 효과를 가져 왔다고 하여, 발육기에 있는 남녀 아동들에게 투기 운동 특히 태권도 수련을 권장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발육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 4. 결론 및 제언

고도문명사회 속에서의 운동량 부족현상이 체력과 정신력의 약화를 가져 왔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질려면 적당한 운동을 하여야 하는데, 옛부터 체력 향상과 정신수양의 도로 행해진 태권도가 의미 있는 운동종목이 되는가. 태권도 수련이 아동들의 성장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기 위하여 선행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학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교육은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방면에 있어서 성장 발달을 조성해 주는 작용이다.
- 2) 취원율이 낮은 우리나라 유아교육 현실상 태권도 교육의 기회를 유아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유아기 태권도 교육을 위해 쉽고 가벼운 것부터 체조화한 동작이 되도록 체계화한 유아 태권도 교육과정의 개발되어야 한다.

4) 선행 연구에 따르면 아동들의 신체적, 지적, 정신적, 사회적 성장에 태권도 교육이 의미가 있다.

5) 따라서, 아동들에게 태권도 수련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양희중, 이규형, 태권도의 가치성에 관한 조사 연구, 태권도 제47호, 대한태권도협회, 1983.
2. 정찬모, 한국 고대 태권도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태권도 제31, 32호, 대한태권도협회, 1979.
3. 허맹옥,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태권도교육의 방향, 상무회보 제3호, 태권도 상무회, 1982.
4. 정찬성, 태권도 수련이 아동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제40호, 대한태권도협회, 1982.
5. 주상일, 태권도가 아동의 기초체력 및 신장에 미치는 영향, 태권도 제27, 28호, 대한태권도협회, 1978.
6. 양진방, 해방 이후 한국태권도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 태권도 제62호, 대한태권도협회, 1987.
7. 김도환, 교육심리학 개요, 형설출판사, 1987.

# 태권도의 가치는 인간 완성에의 추구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는 그 민족의 고유의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어느 스포츠 종목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민족의 혼이 응집된 태권도를 국기로 삼고 있기는 하나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국가적 지원이 아쉬운 실정이다.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날 때부터 자기방어 및 종족보존의 수단으로 투기형태의 무술이 자연 발생되어 왔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으로 명명되어 오다가 오늘의 무도 태권도가 탄생되었다고 한다.

이와같은 무도 태권도는 예의를 중시하고 겸손과 인내를 최고의 미덕으로 삼아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전세계적인 스포츠로 각광을 받아 오면서 질적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것은 우리민족의 영광임에 틀림없는 사실이다.

태권도가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사회체육화 되는 과정에서, 종래의 무도로서의 태권도에서 근래에는 경기위주의 태권도로 치중되어 태권도 고유의 무도정신이 많이 퇴색된 것만은



최집현 / 육군항공사령부 대위  
경희대 태권도학과 졸업

우리모두가 인정해야 하는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무도 태권도와 경기 태권도를 의미상 구분하여 상호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93태권도 한마당"에 참가한 본인의 소감으로는 태권도의 멋진 품새동작, 민첩하고 정확한 공격력, 강한 파괴력 등으로 경기 태권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 뜻깊은 대회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것은 남에게 보여줄 수도 없고 점수와 메달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태권도의 본질은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는 무도정신이라는 것을 태권도인은 항상 염

두에두고 생활에 임해야 할 것이다.

무도라는 측면을 무시한 태권도는 이미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무도 태권도의 궁극적 수련 목적은 마음을 연마하는 고행에 두고 있다. 단순하지만 신체의 반복동작을 통한 육체적 "技"와 정신적 "氣"를 합일하는 정신수도 즉, "인간 완성에의 추구"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어느 무도이건 무도 나름대로의 정신적 사상이 깔려있다. 태권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태권도 정신이라는 무도 사상이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의와 인내를 들수 있겠다. 이러한 내면적 정신을 바탕으로하여 태권도를 수련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태권도수련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일선에서 태권도를 지도하는 지도자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수신하는 자세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88올림픽 이후 체육정책 방향이 사회체육 즉, 온 국민의 체육을 생활화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어 자칫 잘못하면 태권도의 지나친 상업화, 무도성을 상실할 수 있는 잠재요인들이 내재 되어있음을 우리 지도자들은 깊이 인식하고 기술적 지도차원을 초월하여 태권도 교육이라는 전인교육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 앞서 말한 "인간 완성에의 추구"에 우리 모두의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국기 태권도, 태권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END**



# 행사기록

## 고 단 자

### 3차 고단자 (6,7,8단) 승단심사 (93.9.18, 국기원)

#### <합격자 명단>

##### ▲6단

서울: 이상훈, 전홍수, 최문환,  
이재수, 이한현, 이상현,  
이상용, 오배균, 정성인,  
김호섭, 김영선, 유명무

부산: 안운용, 문주학

대구: 이석진, 송장섭, 김학진

경기: 이문형

강원: 원제용

경남: 문석희

국방부: 전홍수

##### ▲7단

서울: 이연구, 김창렬, 최윤수,  
박홍래, 이병직, 장성동,  
김현성, 강대현

부산: 박재선

광주: 강화영

경기: 강성민

강원: 최홍배, 김대용

전남: 방경남

##### ▲8단

서울: 안승용

부산: 이부용

대구: 서종수

전남: 이상현

경북: 정원복

## 사 범

### 제 76기 사범 교육 (93.9.8~21, 국기원)

#### <합격자 명단>

서울: 조근형, 김정근, 연승호,  
강용구, 이종상, 김주철,  
정동석, 박종석, 김동석,  
박태환, 임민좌, 고재홍,  
안대규, 정승철, 최관노,  
노재운, 김형구, 이정산,  
김건영, 김희덕, 김호석,  
배광일, 안재순, 정남근,  
강기운, 옹은환, 서현욱,  
이성훈, 이지형, 박재완,  
백명봉, 정재호, 이한주,  
정문희, 정대영, 홍충선,  
이인재, 이덕규, 박종태,  
조운제, 김태완, 이성룡

부산: 김장환, 최병재, 정원일,  
강철석, 김문성, 류판석,  
김충오, 김무진, 이정호,  
최성태, 이강정, 이형호

대구: 홍영걸, 류기수, 김종길,  
최동성, 김정세, 정영철,  
김상용, 김정익

인천: 이유근, 이구명, 김용근,  
조일현

광주: 윤여문

대전: 이재희, 김호수, 염재선,  
이철재

경기: 박범수, 김형선, 최배성,  
이사중, 김인기, 이용주,  
김만준, 장홍주, 박인만,  
연상경, 배명호, 양일남,  
안도환, 송석현, 임상우

강원: 민종하, 박승하, 이만중

충남: 김문현

충북: 김양우, 김창용, 강성일,  
손영환, 이해우, 이명찬

전남: 김동희, 김도형

전북: 최미래, 김경옥, 박병진,  
이형재, 안대섭, 이순신,  
최신기, 이성열

경남: 김선배, 이필호, 연규영,  
최필용, 이상희, 김용수

이승열, 강영석, 이종익,  
장문익, 전성호  
경북: 배병만, 이경섭, 임종만,  
공범희, 정규익  
제주: 고지형  
국방부: 윤장원, 신호균, 김진일,  
김영환, 김남희, 김중구,  
이상민, 정승룡  
해외: 김요진  
자격: 임재구, 송기영, 장 권,  
박종서, 노인호, 이성한  
응심: 신중원, 윤형태, 윤복재,  
모인원

## 국 내 대회

### 제17회 연세대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 대회 (93.10.20~22, 연세대체육관)

#### (남고부)

##### ▲ 핀급

- 1위: 전형준(선인고)
- 2위: 이태훈(천안중앙고)
- 3위: 장경호(승실고)  
박동종(대전체고)

##### ▲ 플라이급

- 1위: 양현호(리라공고)
- 2위: 조승원(풍생고)
- 3위: 고대휴(남주고)  
정대영(동성고)

##### ▲ 밴텀급

- 1위: 김태훈(리라공고)
- 2위: 김광호(충남체고)
- 3위: 박기호(부산체고)  
김성태(풍생고)

##### ▲ 페더급

- 1위: 김종환(영북중고)
- 2위: 강명구(풍생고)

- 3위: 최규영(광성고)  
최재용(송림고)

##### ▲ 라이트급

- 1위: 서철용(송곡고)
- 2위: 진준수(서울체고)
- 3위: 최태호(선인고)  
정지훈(광양고)

##### ▲ 웰터급

- 1위: 안용준(리라공고)
- 2위: 전유곤(부산체고)
- 3위: 맹길영(부평기술고)  
조상권(여수고)

##### ▲ 미들급

- 1위: 이진우(선인고)
- 2위: 목재균(인천체고)
- 3위: 방효성(송곡고)  
김호권(경남체고)

##### ▲ 헤비급

- 1위: 모종준(부산체고)
- 2위: 박춘택(순천공고)
- 3위: 김길연(인천북공고)  
문용철(인천체고)

#### (여고부)

##### ▲ 핀급

- 1위: 김보인(김제북고)
- 2위: 장정은(송곡고)
- 3위: 주윤숙(고양여중고)  
윤영경(경성여실고)

##### ▲ 플라이급

- 1위: 최재숙(송곡고)
- 2위: 윤송희(성일상고)
- 3위: 유수미(리라공고)  
윤덕희(배성여고)

##### ▲ 밴텀급

- 1위: 황정은(고창여고)
- 2위: 함진희(리라공고)
- 3위: 김순동(고양여중고)  
조선미(경성여실고)

##### ▲ 페더급

- 1위: 박광순(국체고)
- 2위: 이지은(리라공고)
- 3위: 신현순(송곡고)  
손은경(김제북고)

##### ▲ 라이트급

- 1위: 배은정(경성여실고)
- 2위: 전윤희(태원고)
- 3위: 전미영(영북중고)  
이혜경(고양중고)

##### ▲ 웰터급

- 1위: 정미화(김제북고)
- 2위: 임병은(태원고)
- 3위: 유은진(문산중고)  
나인애(부평여상)

##### ▲ 미들급

- 1위: 박은선(고양여중고)
- 2위: 양춘희(김제북고)
- 3위: 김진희(장원여상)  
정경선(리라공고)

##### ▲ 헤비급

- 1위: 박정숙(김제북고)
- 2위: 정해옥(인천체고)
- 3위: 김윤경(경성여실고)  
황동옥(안일여중고)

### 제74회 전국체전 태권도경기 (93.10.11~17, 광주 조선대체육관)

#### (고등부)

##### ▲ 핀급

- 1위: 김도완(전남)
- 2위: 최만용(서울)
- 3위: 김수연(광주)  
김병태(대전)

##### ▲ 플라이급

- 1위: 김천규(서울)
- 2위: 조성현(광주)
- 3위: 김향수(충북)  
나호동(경기)

**▲ 밴텀급**

- 1위 : 박정우(서울)
- 2위 : 유용렬(경기)
- 3위 : 강은수(전남)
- 이임수(부산)

**▲ 페더급**

- 1위 : 김영수(경남)
- 2위 : 최정훈(충북)
- 3위 : 김대성(전남)
- 이준희(경기)

**▲ 라이트급**

- 1위 : 김은철(전남)
- 2위 : 백 익(인천)
- 3위 : 나덕호(광주)
- 김정수(부산)

**▲ 웰터급**

- 1위 : 김경훈(서울)
- 2위 : 송진식(경남)
- 3위 : 김민우(부산)
- 고성석(충남)

**▲ 미들급**

- 1위 : 윤병석(광주)
- 2위 : 이준수(강원)
- 3위 : 빙원철(전남)
- 권창근(경기)

**▲ 헤비급**

- 1위 : 이동완(서울)
- 2위 : 문권수(경기)
- 3위 : 최원집(광주)
- 홍기성(충남)

**(대학부)****▲ 핀급**

- 1위 : 김봉찬(광주)
- 2위 : 강성일(충북)
- 3위 : 진승태(전북)
- 김승윤(제주)

**▲ 플라이급**

- 1위 : 정주철(대전)
- 2위 : 조현식(광주)

3위 : 유상문(서울)

김남경(제주)

**▲ 밴텀급**

- 1위 : 김현용(경기)
- 2위 : 이강희(충남)
- 3위 : 고창현(광주)
- 고동완(전북)

**▲ 페더급**

- 1위 : 팍택용(인천)
- 2위 : 김봉식(서울)
- 3위 : 김현철(전남)
- 강동범(제주)

**▲ 라이트급**

- 1위 : 정을진(전북)
- 2위 : 서배홍(제주)
- 3위 : 박세진(경기)
- 이승희(충남)

**▲ 웰터급**

- 1위 : 장종오(전남)
- 2위 : 김길훈(서울)
- 3위 : 박승현(광주)
- 임영호(경기)

**▲ 미들급**

- 1위 : 강동국(부산)
- 2위 : 최정복(서울)
- 3위 : 김원식(광주)
- 김정규(경기)

**▲ 헤비급**

- 1위 : 박형래(서울)
- 2위 : 손용구(강원)
- 3위 : 이현석(부산)
- 강승수(제주)

**(일반부)****▲ 핀급**

- 1위 : 유창호(전남)
- 2위 : 김병도(서울)
- 3위 : 김지운(광주)
- 이정원(전북)

**▲ 플라이급**

1위 : 유성호(충남)

2위 : 나광운(광주)

3위 : 이화진(경기)

강근배(제주)

**▲ 밴텀급**

- 1위 : 조성호(대구)
- 2위 : 이종현(서울)
- 3위 : 서성교(강원)
- 김양식(전북)

**▲ 페더급**

- 1위 : 선상준(대전)
- 2위 : 권태호(강원)
- 3위 : 인한순(인천)
- 임석섭(서울)

**▲ 라이트급**

- 1위 : 강창모(부산)
- 2위 : 손원기(대구)
- 3위 : 왕광연(광주)
- 김명식(충남)

**▲ 웰터급**

- 1위 : 하태경(강원)
- 2위 : 신광수(충남)
- 3위 : 김성택(광주)
- 김태형(제주)

**▲ 미들급**

- 1위 : 정주석(경남)
- 2위 : 박세홍(서울)
- 3위 : 김병기(광주)
- 방영인(강원)

**▲ 헤비급**

- 1위 : 김제경(경남)
- 2위 : 김현일(서울)
- 3위 : 이계행(광주)
- 고재관(충북)

**(여자부)****▲ 핀급**

- 1위 : 김진성(서울)
- 2위 : 김보인(전북)
- 3위 : 양소희(충남)

김진주(대구)

▲ 플라이급

- 1위 : 고승자(충북)
- 2위 : 조은선(강원)
- 3위 : 유수미(서울)
- 이은옥(충남)

▲ 밴텀급

- 1위 : 진용순(강원)
- 2위 : 김은숙(충남)
- 3위 : 강현옥(부산)
- 황정은(전북)

▲ 페더급

- 1위 : 박경숙(제주)
- 2위 : 신동선(충북)
- 3위 : 윤명숙(서울)
- 양은정(전남)

▲ 라이트급

- 1위 : 정은옥(전남)
- 2위 : 이은정(전북)
- 3위 : 김혜선(충남)
- 윤미영(충북)

▲ 웰터급

- 1위 : 이영미(충남)
- 2위 : 신은정(전북)
- 3위 : 정연옥(경북)
- 정윤경(경남)

▲ 미들급

- 1위 : 박선미(서울)
- 2위 : 양춘희(전북)
- 3위 : 이종월(충남)
- 김진희(대구)

▲ 헤비급

- 1위 : 정명숙(서울)
- 2위 : 백현정(충남)
- 3위 : 박정숙(전북)
- 주미자(강원)

'93년도 전국 우수선수  
선발대회  
(93.11.9~12,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 최용훈(동아대)
- 2위 : 김건일(계명대)
- 3위 : 김태호(대전체고)
- 정재필(개금고)

▲ 플라이급

- 1위 : 이두건(개금고)
- 2위 : 김향수(청주기공)
- 3위 : 유상문(한체대)
- 최윤섭(동천고)

▲ 밴텀급

- 1위 : 김인경(한체대)
- 2위 : 김광호(충남체고)
- 3위 : 황선봉(태성고)
- 김남우(한체대)

▲ 페더급

- 1위 : 양재철(한체대)
- 2위 : 이준희(태성고)
- 3위 : 안홍엽(용인대)
- 강명구(풍생고)

▲ 라이트급

- 1위 : 박의성(한체대)
- 2위 : 심기선(대전체고)
- 3위 : 성의천(국군체육부대)
- 박기채(한체대)

▲ 웰터급

- 1위 : 강동국(동아대)
- 2위 : 김동민(한체대)
- 3위 : 김길훈(경원대)
- 박재홍(동아대)

▲ 미들급

- 1위 : 박종범(상무)
- 2위 : 차용희(동성고)
- 3위 : 안용준(리라공고)
- 이동환(서울체고)

▲ 헤비급

- 1위 : 김세경(상무)
- 2위 : 김정규(경희대)
- 3위 : 박세홍(지하철공사)

홍윤기(보령군청)

(여자부)

▲ 핀급

- 1위 : 장영은(송곡고)
- 2위 : 윤영경(경성여실고)
- 3위 : 유수진(경희대)
- 김은미(태원고)

▲ 플라이급

- 1위 : 이순영(용인대)
- 2위 : 유미란(부평여상)
- 3위 : 윤덕희(배성여상)
- 조미라(광명상고)

▲ 밴텀급

- 1위 : 황은숙(상명여대)
- 2위 : 이선영(송곡고)
- 3위 : 원선진(경희대)
- 진용순(한체대)

▲ 페더급

- 1위 : 윤명숙(상명여대)
- 2위 : 신동선(성신여대)
- 3위 : 이승민(경희대)
- 전기숙(부평여상)

▲ 라이트급

- 1위 : 진혜윤(경희대)
- 2위 : 강해은(경성여실고)
- 3위 : 박경숙(경희대)
- 이정숙(천안여고)

▲ 웰터급

- 1위 : 조항미(경희대)
- 2위 : 이영미(성신여대)
- 3위 : 임병은(태원고)
- 신은정(용인대)

▲ 미들급

- 1위 : 박선미(상명여대)
- 2위 : 이선희(용인대)
- 3위 : 이희영(고양중고)
- 최민정(송곡고)

▲ 헤비급

- 1위 : 추수연(용인대)

- 2위 : 김태희(성신여대)
- 3위 : 김윤경(경성여실고)
- 최연아(배성여상)

## '94년도 국가대표 선발 대회(예선)

(93.11.9~12, 국기원)

(남자부)

### ▲ 핀급

- 1위 : 지진성(서울체고)
- 2위 : 장경호(숭실고)
- 3위 : 김덕훈(풍생고)
- 윤종일(동아대)

### ▲ 플라이급

- 1위 : 고동완(한체대)
- 2위 : 이화진(상무)
- 3위 : 전만중(단국대)
- 유영택(대전체고)

### ▲ 밴텀급

- 1위 : 조진호(한체대)
- 2위 : 윤희식(동성고)
- 3위 : 강병선(용인대)
- 박재성(한체대)

### ▲ 페더급

- 1위 : 정기원(경희대)
- 2위 : 김동현(동성고)
- 3위 : 김봉석(한체대)
- 민경환(청주대)

### ▲ 라이트급

- 1위 : 정광채(한체대)
- 2위 : 양재훈(한체대)
- 3위 : 양원철(청주대)
- 허수녕(인천전대)

### ▲ 웰터급

- 1위 : 김경훈(동성고)
- 2위 : 이진우(선인고)
- 3위 : 송민(경원대)
- 허준석(단국대)

### ▲ 미들급

- 1위 : 강병삼(한국체대)
- 2위 : 최영준(인천전대)
- 3위 : 홍종수(한체대)
- 방효성(송곡고)

### ▲ 헤비급

- 1위 : 하태경(춘천군청)
- 2위 : 안성주(충남대)
- 3위 : 강송수(한체대)
- 강한구(용인대)

(여자부)

### ▲ 핀급

- 1위 : 최한솔(경성여실고)
- 2위 : 김진성(한체대)
- 3위 : 김보인(김제북고)
- 이인정(중부대)

### ▲ 플라이급

- 1위 : 서미라(용인대)
- 2위 : 문경애(시온고)
- 3위 : 윤송희(성일상고)

### ▲ 밴텀급

- 1위 : 함진희(리라공고)
- 2위 : 김순동(고양여고)
- 3위 : 모선영(한체대)
- 이순희(효성고)

### ▲ 페더급

- 1위 : 김미선(인천전대)
- 2위 : 배은정(경성여실고)
- 3위 : 강귀정(인천전대)
- 이경수(중부대)

### ▲ 라이트급

- 1위 : 박정희(한체대)
- 2위 : 조미례(리라공고)
- 3위 : 채수진(혜성여고)
- 박성희(전동중)

### ▲ 웰터급

- 1위 : 김소연(경성여실고)
- 2위 : 정미화(김제북고)
- 3위 : 김미란(금산동중)
- 정윤경(상명여대)

### ▲ 미들급

- 1위 : 정연옥(중부대)
- 2위 : 양춘희(김제북고)
- 3위 : 정경선(리라공고)
- 이종윌(중부대)

### ▲ 헤비급

- 1위 : 박선혜(고양여중고)
- 2위 : 서정화(리라공고)
- 3위 : 신혜진(상명여대)
- 박정숙(김제북고)

## '94년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대회

(93.12.8~10, 국기원)

(남자부)

### ▲ 핀급

- 1위 : 최용훈(동아대)
- 2위 : 진승태(한체대)
- 3위 : 석운용(용인대)
- 장경호(숭실고)

### ▲ 플라이급

- 1위 : 고동완(한체대)
- 2위 : 서성교(춘천군청)
- 3위 : 김향수(청주기공고)
- 유상문(한체대)

### ▲ 밴텀급

- 1위 : 김현용(경희대)
- 2위 : 김인경(한체대)
- 3위 : 조진호(한체대)
- 김광호(충남체고)

### ▲ 페더급

- 1위 : 양재철(한체대)
- 2위 : 이준희(태성고)
- 3위 : 김정호(경희대)
- 김동현(동성고)

### ▲ 라이트급

- 1위 : 정광채(한체대)
- 2위 : 성의천(상무)
- 3위 : 양재훈(한체대)

박세진(경희대)

▲ 웰터급

- 1위 : 김경훈(동성고)
- 2위 : 김길훈(경원대)
- 3위 : 김동민(한체대)
- 장종오(용인대)

▲ 미들급

- 1위 : 박종범(상무)
- 2위 : 이동완(서울체고)
- 3위 : 강병삼(한체대)
- 정주석(상무)

▲ 헤비급

- 1위 : 김제경(상무)
- 2위 : 김정규(경희대)
- 3위 : 하태경(춘천군청)
- 강한구(용인대)

(여자부)

▲ 핀급

- 1위 : 양소희(천안여고)
- 2위 : 유수진(경희대)
- 3위 : 장정은(송곡고)
- 김진성(한체대)

▲ 플라이급

- 1위 : 이순영(용인대)
- 2위 : 서미라(용인대)
- 3위 : 최재숙(송곡고)
- 조미라(광명상고)

▲ 밴텀급

- 1위 : 진용순(한체대)
- 2위 : 김순동(고양여고)
- 3위 : 김은숙(용인대)
- 황은숙(상명여대)

▲ 페더급

- 1위 : 신동선(성신여대)
- 2위 : 김미선(인천천대)
- 3위 : 윤명숙(상명여대)
- 권혁실(용인대)

▲ 라이트급

- 1위 : 강해은(경성여실고)

2위 : 채수진(혜성여고)

3위 : 이정숙(천안여고)

박경숙(경희대)

▲ 웰터급

- 1위 : 조향미(경희대)
- 2위 : 김미영(용인대)
- 3위 : 이영미(성신여대)
- 김소연(경성여실고)

▲ 미들급

- 1위 : 박선미(상명여대)
- 2위 : 양준희(김재복고)
- 3위 : 박은선(고양여중고)
- 이선희(용인대)

▲ 헤비급

- 1위 : 김태희(성신여대)
- 2위 : 추수연(용인대)
- 3위 : 정명숙(혜성여고)
- 김윤경(경성여실고)

품 세 및 격 파 대 회

제2회 태권도 한마당 (93.11.27~29, KBS 88체육관)

▲ 손날격파

(청년부)

- 전청운(고산도장)
- 오정주(중앙경찰학교)
- 우상우(무덕체육관)
- 서주용(체육선교신학교)
- 곽병만(서울지방경찰청)
- 이명엽(서울지방경찰청)
- 박상영(서울지방경찰청)

(장년부)

- 전기복(고산도장)
- 김행준(부산협회)
- 이해준(동구도장)

▲ 주먹격파

(청년부)

- 김호진(대룡도장)
- 홍재익(은석스포츠센터)
- 오정주(중앙경찰학교)
- 최점현(육군제2019부대)
- 신원덕(인천대)
- 우상우(무덕체육관)
- 이무성(효성체육관)
- 배형찬(서울지방경찰청)

(장년부)

- 김기용(성광체육관)
- 최인수(광주체육중)
- 이해준(동구도장)
- 정병모(효성체육관)

▲ 발격파

(청년부)

- 김호진(대룡도장)
- 전정진(경북협회)
- 서명원(남창체육관)
- 김백수(금산비룡체육관)
- 박찬수(체육선교신학교)
- 임창현(체육선교신학교)
- 이덕희(용인대)
- 김진은(서울지방경찰청)
- 서익철(경희대)
- 왕구호(경희대)
- 김상배(경희대)
- 김재수(경희대)
- 박상명(경희대)

(장년부)

- 전기복(고산도장)
- 김현민(속초체육관)
- 강신철(남창체육관)
- 이해준(동구도장)

▲ 멀리뛰어치기

(소년부)

- 이희준(장안체육관)
- 이재동(효성체육관)

정재현(효성체육관)  
이재석(효성체육관)  
송희탁(한일도장)  
정재훈(장안체육관)  
김현규(인천대)  
이근천(상산체육관)  
박형근(용인대)  
이기수(경희대)

#### ▲ 높이뛰어차기

##### (소년부)

송명재(금산비룡체육관)  
윤 필(정의체육관)  
이재석(효성체육관)  
이재동(효성체육관)

##### (청년부)

송희탁(한일도장)  
류하승(경북협회)  
문선대(경북협회)  
이성수(용인대)  
정병민(경희대)

#### ▲ 종합격파

##### (소년부)

곽민철(서울미동국교)  
정명호(서울미동국교)  
이지은(서울미동국교)

##### (청년부)

홍재익(은석스포츠허브)  
황정운(세계태권도선교회)  
강명언(체육선교신학교)

장민성(체육선교신학교)  
최규영(용인대)  
임수철(용인대)  
정병철(경희대)  
오영화(용인대)

##### (장년부)

김희도(세계태권도선교회)  
정병모(효성체육관)

##### (여성부)

정윤희(용인대)  
임미화(경희대)  
주명희(경희대)

#### ▲ 일반품새

##### (소년부)

조은영 외11명(문래국교)  
이승훈 외8명(정의체육관)  
김영록 외14명(청목체육관)  
권오주 외4명(신산국교)  
박충민 외4명(신우국교)

##### (청년부)

박형근(용인대)  
신성우 외1명(금메달체육관)  
김형욱 외4명(흑룡체육관)  
강연식 외4명(서울지방경찰청)

##### (장년부)

전기복(고산도장)

##### (여자부)

박금옥 외4명(고양비호체육관)

#### ▲ 창작품새

##### (소년부)

이봉기 외11명(성웅체육관)  
이 웅 외4명(정진체육관)  
최진만 외8명(청부선체육관)  
김영섭 외4명(남창체육관)  
최미정 외4명(남창체육관)  
신주호 외4명(신우국교)

##### (청년부)

정현도 외8명(충남협회)  
이원진 외4명(남창체육관)  
박진교 외4명(지킴이)  
김중현(용인대)  
이기수(경희대)  
박종만(부평한협체육관)

##### (장년부)

김순철 외8명(불광건민조기회)

##### (여자부)

길재선 외4명(금산비룡체육관)  
변영희 외10명(용인대)

#### ▲ 건강품새

##### (청년부)

장성주 외14명(인천대)  
송영기 외1명(산성체육관)  
임영호 외4명(용인대)

##### (여자부)

김정아 외4명(체육선교신학교)

#### ▲ 호신술

##### (청년부)

안현순 외10명(서울지방경찰청)

94년 1~3월

# 행사 안내

- ▲ 1월 14일(금) : 대의원총회
- ▲ 1월 28일(금)~30(일) : 제11회 아시아태권도 선수권대회(필리핀 마닐라)
- ▲ 2월 18일(금) : 경기규칙강습회(심판)
- ▲ 2월 19일(토) : 경기규칙강습회(코치·감독)
- ▲ 2월 25일(금)~26일(토) : 상임심판교육
- ▲ 3월 16일(수) : 국가대표선발평가전(국기원)
- ▲ 3월 29일(화)~31(목) : 전국실업팀 단체전 (잠실학생체육관)
- ▲ 2월 6일(일)~7일(월) : 이란혁명기념국제태권도대회(이란, 테헤란)
- ▲ 2월 16일(수)~21일(월) : U.S.OPEN 태권도대회(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

## 『태권도 한마당 '93』

# 비디오 테이프 출시

1993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88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태권도 한마당 93의 모든 것이 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 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해 가는 태권도 한마당에 담긴 경건한 모습과 호국의 기상을 태권도 가족과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내 용

TAPE 1. 예선 하일라이트(60분)

TAPE 2. 본선(90분)

주요장면 슬로우 모션 처리

문의처: (주)에드 시네콤

TEL. 678-8858, 0432, 2017

※ 태권도 한마당 테이프는 복제방지 신호로 제작되었습니다.



## 제2회 태권도 한마당 '93

93. 11. 27~29, KBS 88 체육관

TAEKWONDO HANMADANG 93  
Exhibition of Taekwondo Technique  
(poomse, Kyuckpa and Special events)

도장과 학교에서 태권도를 수련해온 남녀노소의 태권도인들이 참가해 빼어난 품새와 위력적인 격파를 보여준 태권도인들의 큰잔치 태권도 한마당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한 이번 경연에는 총 296개팀에서 627명의 경연자가 참가했고 매일 2천여명에 달하는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와 흥미진진하게 경연을 관람하는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생활체육대회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 남녀노소가 한자리에 모여 품새와 격파 경연



▲(발격파) 1차전, 두께 2cm의 송판 3장, 2차전에서 4장을 격파하고 최종전에 오른 경연자가 온몸의 기를 발끝에 모아 송판 5장을 격파하고 있다.



▲ 최세창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태권도 한마당이 생활체육으로서의 우수한 가치를 홍보하고 또 이를 더욱 심도 있게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의의를 들고 태권도인들의 축제로 승화되길 기원했다.



▲ 태권도 한마당 '93을 성공적으로 이끈 태권도계 임원들



▲ (창작품새) 노익장을 과시하며 작년에 이어 우수상을 수상한 불광건진조기화 할아버지들. 강건한 체력과 힘찬 기합소리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 (건강품새) 전통무와 태권도를 조화시킨 건강품새를 선보이며 태권도의 지평을 넓힌 산성체육관



▲(주먹격파) 누구 주먹이 가장 센가. 올해의 주먹격파왕은 기와 16장을 켜 이해준씨(대구 동구도장)가 차지했다.



▲(종합격파) 다양한 고난도 기술로 태권도의 위력을 과시한 종합격파

- ▶ (종합격파) 공중에서 몸을 돌려 승판을 격파하는 모습



- ▶ (일반품새)

제주 고산태권도장의 전기부 7단(50세)이 힘차고 절도있는 품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 ▶ (건강품새)

움동을 가미한 건강품새로 가장 많은 관심과 박수를 받은 용인대(임용호외 4명)



# 94년도 한국 대표 선수 선발대회

The selectional Tournament for Korean  
National Player 94

94년도 국제대회에 파견될 국가대표가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1차 예선전을 거쳐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최종선발전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번 선발전에서는 고교생 김경훈을 비롯해 신예들이 기존대표를 물리치는 파란을 일으키는 가운데 남자 해비급의 김제경을 제외한 남녀 15명의 국가대표가 새로운 인물들로 바뀌는, 사상 최대의 물갈이가 이루어졌다.

이번에 선발된 체급별 1위자는 94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11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 대표선수로 유일하게 타이틀을 지킨 헤비급의 김계경선수

# 제74회 전국체전 태권도 경기

93. 10. 11~17, 광주 조선대 체육관

The 74th National Sports Festival  
Taekwondo Competition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경기와 올해 최초로 여자부 경기가 시범경기로 채택된 가운데 펼쳐진 이번 전국체전에서 서울시 선수단이 단체우승을 차지하며 역량을 과시했고 주최도인 광주직할시는 2위, 3위는 전라남도가 차지했다.



▲ 대표자회의 모습



◀ 고향의 명예를 건 열띤 한판

# 93년도 전국 우수 선수 선발대회

93. 11. 9~13, 국기원

Annual Best Player Tournament

93년도 전국대회의 입상자들이 펼친 이번 대회에서 남녀 밴텀급 우승자인 김인경(한체대)과 황은숙(상명여대)이 최우수 선수로 선발되었다.

한편 이번 대회의 체급별 1,2,3위자들은 94년도 국가대표 최종선발전에 출전할 자격이 주어짐으로써 태극마크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 최우수선수로 선발된 황은숙, 김인경선수

